

문화정책

2024 합본호 **로컬로 턴**

vol. 24 / 2024 Spring
지역과 청년

vol. 25 / 2024 Summer
지역과 기억

vol. 26 / 2024 Autumn
지역과 다양성

vol. 27 / 2024 Winter
지역의 도전

지역소멸에 대한 문화정책적 모색과 대안 ‘로컬로 턴’

2024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는 ‘로컬로 턴’이라는 연간 주제로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며 지역소멸이라는 당면 과제에 대한 문화 정책적 모색과 대안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24호에서는 지역 청년의 활동 지형을, 25호에서는 지역의 기억과 문화적 유산을, 26호에서는 지역사회 속 문화적 다양성을, 27호에서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방향성을 조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품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화예술이 어떻게 더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를 탐색해보았습니다.

주제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확장된 논의를 열어주신 편집위원님들과 필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그간의 실천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직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과 채우지 못한 여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다가서는 주제와 폭넓은 시각으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통합본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나눈 다양한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기며, 새로운 인사이트와 영감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실어주신 마음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vol. 24 / 2024 Spring 지역과 청년

칼럼

무진 1964-2024 08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이슈

1. 아무도 대신 이야기해주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10
장혜원 / 하트인부산 발행인
2.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에 대응하는 대학, 그리고 글로컬리즘 14
김주현 /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교수
3. 어쩌다 부산, 좋아서 부산 16
김미양 / 작가, 기억과 부엌사이 대표
4. 기회, 동료가 함께 하는 청년들의 부산을 상상하다 19
원향미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사람과 현장

부산의 로컬 크리에이터 22
이언주 현대무용단 자유 대표 / 강희재 러브쓰피 대표
대담자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고서 돌아보기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리뷰 27
조명제 / 신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30

vol. 26 / 2024 Autumn 지역과 다양성

칼럼

다양성, 지역의 힘 64
창파 / 실험실 C 아티스렉터

이슈

1. 부산의 문화다양성, 어떻게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가? 67
정보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 '모두를 위한 도시' 만들기 - 포용성과 포용도시 70
정현일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3. 지역의 세대 다양성을 위한 소통과 통합 73
장정윤 /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 역임
4. 춤추는 도로서, 어디까지 왔니? 76
- 베리어프리,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서 대표 허경미 인터뷰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사람과 현장

사상 이주민 반상회 80
김동규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연구보고서 돌아보기

젠더 다양성과 성별영향평가 8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리뷰
문재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여성학 협동과정 교수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86

vol. 25 / 2024 Summer 지역과 기억

칼럼

지역의 기억과 장소 사용법 36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이슈

1. 부산무형유산의 기억과 전승 -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중심으로 39
김선영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전임강사
2. 지역 공간의 무한변신 - 영도의 문화복합공간 43
장혜원 / 쓰담 출판사 대표
3. 생명체로서의 마을을 마주한 아카이빙 - 하단포구, 문화路 있다. 45
탁경아 /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4. 부산에는 사이어촌마을이 살아있다. - 어촌의 문화적 도시재생 가능성 48
홍순연 / (주)로컬바이로컬 대표

사람과 현장

부산, 원도심,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젝트 51
김주현 /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문화기획전공 조교수

연구보고서 돌아보기

유희공간 문화재생,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55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58

vol. 27 / 2024 Winter 지역의 도전

칼럼

지방시대,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열다 92
이미연 /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슈

1. 부산광역시 인구정책과 문화예술 95
김민경 /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2. 지속가능한 지역 공연예술 축제 - 부산국제춤마켓 98
신은주 / 부산국제춤마켓 예술감독
3. 클래식, 관객과의 변주 문화예술 스타트업 사콘느 101
윤보영 / 문화예술 스타트업 사콘느 대표
4. 로컬 to 로컬 105
오동욱 / (주)바림 대표

사람과 현장

청년집담회 - 부산,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107
페레즈 카르바할 마리아 카밀라 / 직장인
주라에바 아이샤 타키르 키지 / 학부생
이소이 / 직장인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고서 돌아보기

느리되 함께 가는 지역문화 창업 111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114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로컬로 턴
vol. 24 / 2024 Spring

다문화문화재단
다문화문화재단
다문화문화재단

이슈

문화정책

지역과
청년

페이퍼

최근 청년유출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영역에서도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로컬로 턴이라는 연간주제 하에
이번 24호에서는 부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재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칼럼	
무진 1964-2024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08
이슈	
1. 아무도 대신 이야기해주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장혜원 / 하트인부산 발행인	10
2.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에 대응하는 대학, 그리고 글로컬리즘 김주현 /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교수	14
3. 어쩌다 부산, 좋아서 부산 김미양 / 작가, 기억과 부엌사이 대표	16
4. 기회, 동료가 함께 하는 청년들의 부산을 상상하다 원향미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9
사람과 현장	
부산의 로컬 크리에이터 이언주 현대무용단 자유 대표 / 강희재 러브쏘피 대표 대담자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2
연구보고서 톡아보기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리뷰 조명제 / 신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7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30

무진 1964-2024

박소운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무진(霧津)은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가야 하는 바닷가 지역이다. 안개로 자욱한 그곳은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갖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쓸쓸함의 은유다.

김승옥이 1964년 발표한 단편소설 『무진기행』의 주인공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잠시 고향 무진에 가게 된다. 가난한 폐병 환자였던 지난날, 몸서리치게 떠나고 싶어 했던 그곳이다. 모임에서 우연히 젊은 날의 자신처럼 이 쓸쓸한 무진을 떠나 서울로 가기를 열망하는 하인숙을 만난다. 처음 만난 ‘나’에게 몸을 얻 하인숙이 욕망하는 것은 ‘나’를 통해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서울이다. 무진에 살았던 ‘나’도, 무진에 살고 있는 하인숙도 서울은 욕망하는 그 모든 것으로 표상된다.

무진의 청년들은 왜 그토록 서울에 가 닿고 싶었을까.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 주창하던 것은 조국 근대화였다. 근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대는 넓다. 중세 때 교회 문헌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는 이 근대라는 단어 안에서 꿈틀거리며 각 시대 들을 열어왔다.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는 산업화를 의미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71) 때만 해도 농업정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3차 경제개발 5개년(1972~1976) 계획에 접어들었을 때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군부독재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산업화 전략은 농·어촌 중심의 지역사회를 빠르게 해체 시켜갔다. 지역의 패기 넘치는 청년들은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역에서 거주하던 청년들도 서울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서울은, 무진과는 달리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을 어떻게 대해왔을까.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제정된 후 2024년 5월까지 총 72회의 개정과정을 헤쳐나왔다. 75년간 무려 72회에 이르는 개정은 지역에 대한 정치적 계산, 혹은 고심이 많았음을 알게 한다. 지역문화와 관련한 최초의 흔적은 1951년 이승만 정부 당시 시작된 지방문화원이다. 이것은 1960년까지 20개소로 늘어 났다가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대에는 124개소로 확대되었다. 이 지방문화원을 받치는 법이 1965년 7월 제정된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이었다. 이 법의 제2조에서 명시하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그 협조하에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 향토문화를 계발·보급·선전하는 사업, 외국의 문화기관과의 협

조하에 민주 우방 제국의 문화를 소개·선전하는 사업이 이 법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볼 때,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해 작동했다기보다는 정부의 문화정책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1994년 7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마침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광주, 경주, 전주, 부여·공주에 문화도시를 조성하였다. 지역문화와 관련한 법 제도도 정비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2016년 5월 지역문화진흥원을 개원하였다. 현 정부는 2023년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파른 인구 소멸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주로 인한 비수도권의 지역소멸을 멈추게 하기에는 숨이 가쁘다.

무진은 실재하는 지명은 아니지만 60년대 이후,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무진일지도 모른다. 2024년의 지역은 1964년의 그곳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일자리, 출산 장려 등 여러 정책을 내지만 청년들에게 닿지는 않는다. 그 제도들이 자녀 1명당 얼마 주겠다는 식의 기계적인 목적 달성과 단기 성과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용도나 목적에 의한 ‘본질’이 아닌, 그 존재만이 중요한 ‘실존’임에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자원이니, 비용이니 라는 식으로 그 존엄성을 폄훼 시키고 있다. 인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간헐적이고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비정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생명을 그 자체로 확대하지 않고 효용자원으로 대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 청년들은 비출산으로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청년인구의 대도시 이주는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춘천, 진천, 음성, 태안, 순천, 창원, 울산 등 여러 산업도시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시는 아닌 것 같다. 청년들은 주중에 일만 하고 여가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보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미 즉 문화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공원, 카페, 펍, 책방 등은 그들에게 정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이다. 사람을 확대하고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포용하는 진심 말이다.



김승옥, 『무진기행』, 범우사, 1994

아무도 대신 이야기해주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장혜원

하트인부산 발행인

부산에 사는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취업 문제를 바로 떠올릴 것이다. 살기 위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려는 청년들. 필자도 부산에 사는 청년으로 20대 때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생부터였다. 당시 주변에는 전문대를 가더라도 무조건 인서울은 해야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20대가 되니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지인이 늘었고, 언젠가는 떠나려 했다. 필자가 로컬 잡지를 기획하게 되었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하나 둘 꿈과 직장을 찾아 부산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청년인 우리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 가진 재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하트인부산>을 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보면 애정이 깊어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등의 선순환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부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겠구나, 부산에 대해 더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마음 쓰지 않을까. 부산에서 활동하는 여러 문화인을 만나고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알리는 역할의 매체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잡지를 선택했고 201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9권의 잡지를 발행했다.

잡지를 택했던 이유는 다양한데 가장 큰 이유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 그리고 오랫동안 인쇄물로 기록이 보존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청년들이 전하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 내어 '부산 지역의 활성화와 아카이빙'이라는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실물 제작을 도전한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한 권으로 담아내 청년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에도 너무나 많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있고, 꾸준히 자신의 분야를 발전, 확장해 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조금만 알아본다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 제도들도 있다. 많은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꾸준히 낮추는 작업은 해야겠지만, 없어서라기보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 줘야 할 이야기들을 부족하게나마 책으로 엮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알아갔으면 한다. 로컬을 잘 아는 만큼, 로컬에서의 경쟁력이 생긴다. 문화와 예술이, 사람과 사람이 로컬 잡지를 통해 지속적인 연결

로 네트워크 생성 및 활동 영역 확장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 휴간된 상태이지만 로컬 잡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확장된 콘텐츠로 문화는 계속만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국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로컬 잡지를 제작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청년이 만나 시너지를

부산에서 청년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만든 로컬 잡지가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젝트인 '2023년 금정 청년 러스틱 드림 사업 금정명작'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매거진 제작 프로젝트이다. 이는 청년 인구 소멸 지역으로 금정구가 선정되면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청년 양성에 투자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을 통해 22명의 청년 문화기획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슬금 탐구(슬기로운 금정 탐구생활)>는 진행했던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만들면서 있었던 고군분투기를 인터뷰로 담아낸 한 권의 특별편이다. 잡지에는 14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문화기획을 하며 배우거나 성장하게 된 포인트가 담겨있다. 잡지를 기획한 박희수, 정은진 기획자는 <슬금 탐구>를 통해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고,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며 용기를 얻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길 바란다고 한다. 또한 그녀들은 휘발될 수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에도 도움이 되고, 잡지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 나아가 온라인 발행 등 다양한 콘텐츠도 지역 내에서 좋은 에너지들이 환류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산 청년들이 만든 로컬 잡지 <슬금탐구>

로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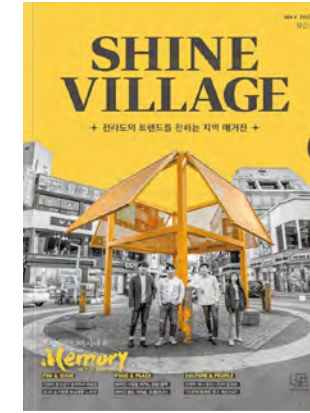
고창 청년들이 만든 <시고르자브지>는 고창청년벤처스 청년들로 시작된 로컬 잡지이다. 조은진 기획자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잡지를 통해 시골에 정착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한다. 2022년 6월 온라인 창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8회 발행하였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종이잡지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회 발행했다. 시골에는 도시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 많다. 그는 그 청년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기 위해 잡지라는 매체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을 제대로 소개해 주고, 지역과 세대를 넘어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하나씩 달성해가고 있다. 보통 언론에서는 귀촌 성공사례, 유유자적한 인생만 부각해 소개를 하니 시골의 청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시고르자브지>는 청년의 치열한 삶의 목표를 사회적인 성공에만 두지 않는다. 대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과정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년의 모습들은 올해를 시작으로 잡지의 글에서 나와 오프라인 공간에 펼쳐진다. 앞으로 <시고르자브지>는 '배꽃 피크닉(4월)', '미식 다이닝(10월)' 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고창 청년들이 만든 로컬잡지 <시고르자브지>

내가 사는 로컬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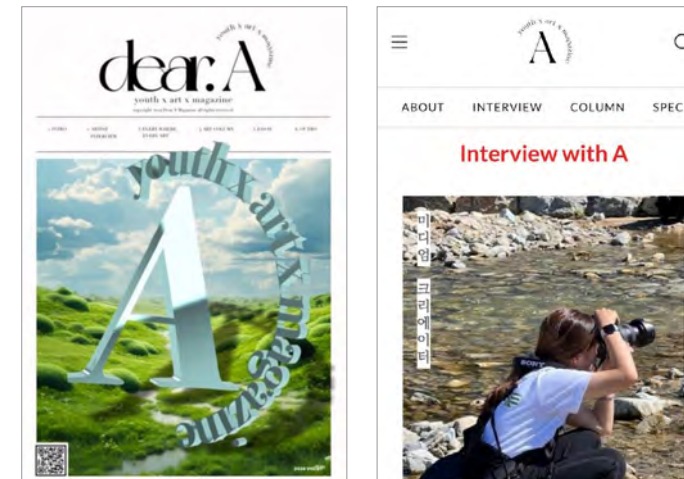
2013년 12월 전남대학교 대학생 2명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아따 광주랑께?>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멤버였던 김주영 기획자는 SNS를 통해 카드 뉴스로 주로 소식을 알리다가 여행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로컬을 다양한 연령대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광주(光=빛나는, shine 州=고을, village)라는 뜻의 <샤인 빌리지>라는 로컬 잡지를 2020년 4권 발행하였다. 대학생 에디터들과 함께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광주를 다양한 주제로 담아내었고, 각 장소를 즐길 수 있는 요소에 주목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다. 발행인 김주영씨는 로컬에서 많은 사람이 지역을 더 알고 사랑하도록 잡지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나가는 중이다.



전남 청년들이 만든 로컬 잡지 <샤인 빌리지>

Youth X Art X Magazine

2021년, 서울경기 청년들이 모여 'Youth Art Magazine' 명칭의 메일링 서비스로 시작한 <Dear.A>는 친애하는(Dear) 모두에게 청년 예술가의 예술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디어에이 제작자들은 잡지라는 매체가 '관심 분야 입문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청년들의 작품, 예술관을 맘껏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의 역할로 웹 매거진, 지류 매거진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Dear.A>를 통해 예술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많은 청년이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청년 예술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예술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을 콘텐츠에 담아 그들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서울경기 청년들이 만든 예술 잡지 <Dear.A>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에 대응하는 대학, 그리고 글로벌리즘

김주현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최근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역소멸’, ‘청년유출’, ‘수도권 집중화’와 같이 ‘쇠퇴’를 연상시키는 용어들을 흔히 마주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유입의 가속화와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최근 더욱 빈번하게 관련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소멸, 청년유출과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228개)에서 52%(118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22%(51개)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즉, 국가의 74%가 소멸 위기에 처해있으며 30년 후에 해당 지역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내 제2의 도시로 불리었던 부산도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이주한 부산 인구는 약 11,260명으로,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최대치이다. 특히 2534세 청년 중 7623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수치화된 자료들을 확인하자니, 문제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는 듯하다.

본인은 대학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음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이 각자의 길을 명쾌히 걸어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주제의 연구와 교육 과정의 운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의 연구는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교육은 학생들이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행복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본인이 속한 대학을 포함한 다수의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인재 확보에 대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비수도권 사회·문화·일자리 등 인프라의 부족만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야기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대입을 앞둔 입시생의 관점으로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라면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비수도권 지역 대학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글로벌리즘은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 지식, 문화, 경제 등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교통수단·온라인 환경·대량생산 시스템 등의 급진적 발달로 야기된 전 세계 시장 확일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커다란 부를 안겨주었지만, 문화적 융화와 소멸, 노동력 이동과 실업,

환경 파괴, 불평등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에 사회적 균형을 강조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방화(世方化), 글로벌리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글로벌리즘이라는 용어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전 세계를 휩쓸자, 위기를 느낀 지역 음식 산업군과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초기에 사용하였다. 현재는 지역 균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되었으며, 최근 각 대학의 지역연계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글로벌리즘 개념의 등장 배경을 보자면, 현재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이 처한 상황과 매우 중첩되어 보인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 교육의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전국 대학 기관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소수의 특성화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몇 년 전까지 큰 문제 없이 유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출신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위를 취득시켜왔다. 전체적인 인구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지역 이탈률이 급증하는 지금, 대학은 글로벌리즘 용어를 앞세우며 인재를 확보할 방안을 찾고 있다. 늦었지만, 여기에서부터 지역 대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내야만 한다.

가. 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리즘 기반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나. 교원들은 차별화된 관점으로 각자의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다. 교원은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책 등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가?

라. 지·산·학 연계형 프로젝트를 꾸준히 운영하며 향후 지역에서 학생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 졸업생들은 차별화된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활발히 찾아낼 수 있는가?

혹은 대학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 높은 지역 애착을 바탕으로 지역 내 취·창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가?

지역의 소멸과 청년의 유출은 거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야 한다. 몇 가지의 단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겠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차별화된 ‘교육’, ‘연구’, ‘봉사’를 진심으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다 부산, 좋아서 부산

김미양

작가, 기억과 부엌 사이 대표

제주 사람이 ‘어쩌다’ 부산에서 10년

벚꽃이 곧 흐드러지게 피어날 듯 말듯, 사람 마음을 간지럽히는 시기다. 내가 난생처음 부산 땅을 밟았던 날도 꼭 지금과 같은 봄날이었다. 10년 전, 캐리어 하나 질질 끌고서 부산역을 빠져나오던 그때만 해도 부산에 이리 오래 머물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눈 감았다 떠 보니 어느새 10년. 그사이 나는 부산에서 책을 내고, 부산에서 문화기획을 하며, 부산 토박이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명실상부 ‘부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주에서 태어나 대전 찍고 부산.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특별하다면 특별한 나의 주소 변동 이력 때문에 이런 질문도 자주 받았다.

“제주도 사람이 어쩌다 부산에 오게 됐어요?”

처음엔 상세하게 답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도 결국은 세 단어로 압축되는 사연이었다. 고향을 떠나 대전으로 간 이유는 ‘학업’, 부산에 오게 된 이유는 ‘취업’, 부산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된 이유는 ‘혼인’.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질문과 답이 모두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한 청년에게는 아무도 상경하게 된 이유를 묻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왜’가 필요치 않으니까. ‘인 서울’을 목표로 삼는 것이 당연한 서울공화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깐.

우리에선 ‘서울’ 외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한때 제2의 수도였던 부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적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서울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고, 외부 청년들을 이곳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부산 청년들이 입 모아 외치는 것은 ‘일자리 증대’와 ‘주거비 완화’다.

물론 그것만도 단기간 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어보고 싶다. 고향과 서울 외에 자신이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는 우리의 기준이 더 주관적이고 다채로워지기를 꿈꾼다.

내가 부산에 오게 된 결정적 요인은 ‘일자리’였지만, 내가 부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했다. 제주도 출신인 나에게는 대학 시절 머물렀던 대전보다 부산 음식이 입맛에 잘 맞았다. 또 대도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주도처럼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크나큰 매력이었다.

나처럼 다른 지역에 살다 부산에 정착하게 된 주변 청년들 또한 저마다의 사적인 이유를 하나씩 품고 있었다. 바다, 산, 강이 함께 있어 언제라도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도시라서. 지하철과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 배, 모든 이동 수단이 갖춰진 교통의 중심지라서. 날씨가 덜 춥고 덜 더워서. ‘붓싼아이가!’로 다 통하는 부산 사람 특유의 낙천적이고 시원시원한 성미가 잘 맞아서.

부산을 택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지만 부산에서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지극히 사소하고도 사적인 비결정적 요인. 이러한 점들은 두 개 이상의 도시에 살아보아야만 몸소 발견할 수 있는 매력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진 건 “in 서울 or not” 이 두 가지 선택지만이 아니라는 걸, ‘나에게 잘 맞는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청년들이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며 직접 느껴볼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2023년도 영도문화도시 연결기획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토피아를 위한 공동기획구역> 프로젝트는 그런 점에서 인상 깊었다. 부산 영도에 도착한 울산 기획자와 장생포에 도착한 영도 기획자가 서로의 낯선 도시를 탐색하며 각자의 눈으로 직접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는 실험이었다.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역들의 세세한 명칭을 다시 호명하며 서로 다른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청년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

‘교류’와 ‘재발견’으로 다시 생동할 부산 문화예술을 위해

머물 수 있는 집과 최소한의 생계비만 보장된다면, 부산은 누구에게라도 한 번쯤 ‘살아보고픈’ 도시다. 타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단, 여기저기서 유행하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처럼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바라지 않는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부산과 관계를 맺으며 두 지역을 오가거나 혹은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 중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과 ‘굿모닝 예술로’ 사업 외에 타 지역 문화예술인을 부산 기업과 매칭시키는 이른바 ‘웰컴! 예술인’ 사업을 시도해보았으면 한다. 부산에서의 활동 경험으로 시작해 부산에 정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과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제도로 부산식으로 풀어보면 좋겠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도 부산의 문화예술단체에 연수단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쌓고, 이후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실무에 대해 조언해 줄 사수가 없어 힘든 점이 많았다. 문화예술단체에서의 연수 경험은 이러한 막막함을 해소시켜주고, 문화예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펼쳐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지역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2023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평균 대비 2040세대 예술인 비율이 낮은 편이다. 미래의 문화예술을 끌고 갈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이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국 평균	19.2%	32.2%	17.9%	13.1%	10.9%	5.0%	1.6%
부산	15.8%	23.1%	15.7%	15.3%	17.0%	9.8%	3.4%

[표 1] 예술인 세대별 비율 전국 평균 및 부산지역 비교
출처: 「2023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그러나 이 자료로는 결코 부산 청년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다 읽어낼 수 없다. 이 통계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만 집계가 되어 있으므로, 미등록(혹은 비등록) 청년예술가들을 눈여겨 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작년 12월 서면에서 열린 <제1회 마우스 북페어>가 그 사례다.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독립출판 축제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지 않고 예술가들이 사비를 털어 자력으로 이뤄낸 행사였다. 100개가 넘는 부스가 빼곡히 채워졌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나 '예술인활동증명'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서로의 출판물을 응원하고 서로를 예술가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아름다운 축제를 펼쳤다. 부산이 좋아 부산에 살면서 '지원제도 바깥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을 어떻게 뒷받침해줄 것인지. 이 숙제를 꼭 풀어주시길 바란다.

기회, 동료가 함께 하는 청년들의 부산을 상상하다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올해 고3 수험생이 된 큰아들에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어디서 하고 싶냐고 물었다. 부산에 좋은 직장 있다면 부산에 머무르고 싶다고 답을 들었지만 뒤이어 부산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도 함께 들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 'Be ambitious!'의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던 우리 세대 청년들과 달리, 요즘의 부산 청년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떠밀려 타향살이를 시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자신의 전망을 찾아가는 여러 갈래 중에 지역에서의 삶을 만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문제는 부산이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도시들이 축소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만 규모가 작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부산의 속도는 자연스럽지 않게 너무 빠르다.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통계를 살펴보면 20·30대 예술인들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물론 객관적 수치로 보면 30대 예술인들이 부산 전체 예술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30대 예술인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50대 이상 예술인들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현재의 수치는 부산에서 예술인으로 진입하는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야 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부산광역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도적 기반과 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도적 기반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육성 조례

2017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명기되어 있다.

제15조(청년문화사업)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①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청년문화예술 공간 제공, 청년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 10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거리 조성
4.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 공연, 전시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6.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원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연구,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청년 기본조례와 청년 문화예술육성 조례에서 언급된 지원사업들은 여러 경로로 추진 중이다.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청년 관련 문화 분야 지원 정책

부산의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청년플랫폼에 제시된 문화복지영역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주요내용	운영기관	
청년 문화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청년작당소	부산문화재단 외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지역 청년예술인 30명 내외 부산문화회관 공연 참여 기회 제공	부산문화회관	
청년 문화육성 지원	창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우수예술인 집중지원 (공연-연출가 제작/시각-레지던시 파견)•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부산문화재단
	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아트페어 [under39]• 청년예술작품 구독	
	홍보	청년문화 홍보	
	청년 만원 문화패스	지역 우수공연 1만 원으로 관람 기회 제공(선착순 5천명)	부산경제진흥원
청년 문화축제 개최	부산 댄스 페스티벌 개최	-	

부산지역의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은 크게 공간 지원, 창작 지원, 유통 및 교류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진예술가들의 진입 기회 제공을 위한 신진예술가 창작 지원부터, 교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어, 작품 구독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청년 예술인들과 시립예술단이 함께 하는 기획공연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 또한 시즌 단원제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청년층의 문화 향유 수요를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청년 만원 문화 패스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복지 영역 사업은 아니지만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공간들이 청년 커뮤니티의 활동 기지로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 동료, 롤모델이 함께 하는 문화도시 부산 만들기

과거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년 예술인들은 앞서 언급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예술계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전시회나 공연을 할 수 있었고,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예술 활동의 기회가 많아지고, 작업을 함께할 동료들이 많아지는 것은 청년 예술인들이 부산을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에 덧붙일 요소는 롤모델의 존재이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롤모델이 된 중견, 원로 예술인들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은 부산에서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선배 예술인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래도 이 지역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일터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이 중년, 노년이 되었을 때도 부산이 일터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예술을 이어나가기로 뜻을 정한 이들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청년예술인을 포함하여 지역 예술인 전체를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부산이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은 아니다. 반면 문화생활을 누릴 곳이 많지 않아, 타지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공방을 찾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활동 기회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여전하다고 보는가?

희재 그렇다고 본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너무 당연하게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부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점도 있다.

언주 저 또한 그렇다고 본다.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과거에 비해 부산에서의 지원도 다양해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산에서 도전할 기회가 더 열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활동/취업 관련 지원정책의 한계 및 장점에 대한 의견은?

희재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금만큼이나 관광 분야에서 받은 지원금도 많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및 창업 등 다양한 정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렇기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들이 많아서 더욱 동기부여도 된다. 그리고 한 계라기보다 추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인근 사장님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같이 상권을 살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리단길 도장깨기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함께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좋을 것 같다.

언주 공연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 지원금으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반면에 정책의 한계라면 중복 수혜 불가능, 나이 및 지역 제한 등이 있다. 가령 중복 수혜의 경우, 우수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면, 다원예술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등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지역 제한

의 경우, 공고에 부산 거주자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용수 중에 개인적 이유로 주소는 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무용수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의 기회가 열려 있어서 질 좋은 공연을 선보이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 지원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원의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유연한 정책이 절실하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의 청년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주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일단 순수 무용학과는 부산대학교만 남아 있다. 동아대, 신라대 등 거의 폐과됐다. 그리고 무용과를 졸업한 이들이 수도권으로 가거나, 생계문제로 무용을 그만두는 이들을 볼 때, 내가 더 많이 이끌어줘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으로 옮겨 간 친구들을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면, 더 다양한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고, 부러운 마음이 함께 든다. 젊은 계층들이 젊은 감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해줘야 부산 지역의 무용계가 굴러갈 수 있는데, 아쉬움 마음이 한가득이다.

희재 저 또한 최근의 큰 이슈이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 대표의 입장에서 채용을 하려고 보니,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됐다. 특히 함께 커가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분들을 채용하여 일을 알려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점을 배워서 수도권으로 떠난다. 이렇듯 함께 커갈 수 있는 인재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희재 양질의 일자리와 채용 정책, 문화 환경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대해 부산시가 고민해주길 바란다. 가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 수준과 기간, 청년의 범위 등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기업과 청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주 지원금에서 댄서비용을 책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생계가 안정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가령 현대무용에서 정기적으로 무용수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구 시립무용단과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무용단뿐이다. 또한 수도권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수도권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 나아가 외국과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으면 한다.



현대무용단 '자유'의 초연 「지독했던 오후」, 2019 (사진제공자 박병민)



‘러브썬피 드로잉스튜디오’ 강연 참여자의 활동 모습

부산시의 예술인으로서 문화 예술계에 있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연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혹은 활동을 희망하는 무용수들의 커뮤니티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가 만들어 자립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희재 앞서 지원정책의 한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향유 및 기회 등의 수도권 집중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또한 창업이 집에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에서 시작되었듯 청년들이 작은 도전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희재 정말 큰 포부가 있다. 바로 '문화예술학교'를 짓는 것이다. 지역을 비롯해 여러 환경에 의해 문화예술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싶다는 아주 크고도 멋진 포부이다.

연주 매년 정기 공연을 반드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제 무용을 시작하는 단계의 무용수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여러 지원사업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 강희재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전공을 살려, 현재 부산진구에서 '러브쓰피 드로잉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연주는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으며, 현재 현대무용단 '자유'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채용 정책, 문화 환경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대해
부산시가 고민해주길
바란다.”



현대무용단 '자유'의 공연 「적정온도」, 2021 (사진제공자 김도일)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리뷰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조명제

신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지역소멸이라는 화두

근래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우려하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지역소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거나 어쩔 수 없는 경향으로 체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층이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대학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본래 지역소멸은 2014년에 일본에서 제시된 마스다 보고서에서 촉발된 것이며, 다음 해에 한국에 소개되면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마스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 출생률의 향상 문제는 한국사회의 과제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지만 하나의 의제로 논의될 뿐이며, 위기의식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근래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 성과로 제시되고 있다.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김규원·김소연·변지혜,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문화를 지원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검토, 연구한 보고서이다.

적지 않은 분량의 보고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획일적인 정책보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드러난다. 곧 지역소멸에서 지역 매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전환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거나 특정 지역이 갖춘 강점이 있는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역 매력에 연계되는 분야로 문화예술, 문화 및 관광서비스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학과 지역문화를 통해 제시했다.

RESEARCH

대학이 지역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가.

이 보고서는 지역문화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로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이에 대한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 분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연계 정책인 LINC 사업, 지역문화 생산 주체로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지속적인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대학이 수행하는 지역 연계 사업은 현실적인 한계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은 중장기적인 대학 혁신과 발전 방향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되거나 땀질식 처방에 가깝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일방적인 대학평가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대학이 과연 다양한 사회 현안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적합할까. 현재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각종 연구비와 발전기금의 획득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지역대학의 생사를 좌우한다. 그리하여 대학-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각종 사업은 지역 공헌보다 대학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교육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수적인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다. 근대 이후 주체적으로 대학을 제대로 만든 경험이 없는데다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적 모색도 부재한 것이 한국 대학의 자화상이다. 구조적인 개혁은 요원하더라도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의 시스템 구축과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 요구된다고, 한 마디로 요약하고 싶다.

지금과 같이 학과 중심의 대학제도에서 지역 연계형 교육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학에 지나치게 많은 관리 업무가 부여되고 전문 외의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구와 교육의 전문가에 불과한 교수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시스템과 전담 스텝이 구축되어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지만, 현실은 임시적인 사업단과 비정규직으로 꾸려질 뿐이다.

나아가 대학의 이수 커리큘럼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대학에 소속해서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테마에 따라 대학, 학과, 지도 교수 등을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든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과, 대학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열린 대학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필자는 보고서의 방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디테일한 거버넌스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라는 난제는 당위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기존 정책과 대응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지만 지역분권을 위한 목소리는 울림이 약하다. 수도권 집중이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정부는 증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술은 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을 그때그때 내놓는 식으로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지역이 소멸하면 서울도 무너지고 국가도 위기를 맞게 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뿐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정치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공감 부족이나 편견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심과 중앙권력에 대한 대중의 갈망, 지방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언설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중앙이라는 수도권은 보편이고 지방은 특수라는 선입견이 숨어 있다. 수도권 집중은 특별히 노력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사람, 자본, 정부 지원 등이 몰려 이루어진 결과이고, 지방의 희생과 맞물려 있다. 서울이 특성화를 통해 이룬 성취가 아니라면 지방에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아가 지역 특성을 말하지만, 서울에서 생산된 획일적인 문화가 지역으로 쏠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도의 경제, 인구 규모라면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독자적인 재생산구조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조차 학문의 자기재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대학에서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거의 무너진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주체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대학의 역할과 지역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토목사업이나 이벤트 수준으로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지역의 대학과 문화예술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당위성만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이 기능 연수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역할과 지역문화의 재생이라는 화두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지역민에게 제기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외부의 제언을 계기로 내부에서 훨씬 심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지역의 아포리아가 주어진 셈이라 하겠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4. 01. ~ 03.

문화체육관광부

'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1.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 활동 부담을 낮추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11만 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한다(2.8)**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복지예산 1,067억 원으로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과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명에게 상하반기 구분없이 한 번에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명칭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 세계총회 유치 확정(1.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 세계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했다. 문화예술 세계총회는 국제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IFACCA)에서 정회원 기관과 협력 추진하는 국제 행사이다. 본 행사에서는 전 세계 문화·예술 산업 관련 분야의 주요 정책 입안자, 정상급 인사와, 석학, 예술가들이 참여해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최신 이슈에 대해 논하게 된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10권
『부산의 환승역』출간(1.22)**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시리즈> 열 번째 총서인 『경계를 넘다 사람을 잇다 - 부산의 환승역』을 출간했다. 이번 총서에는 11인이 필진으로 참여해 만남과 이별, 연결과 단절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대도시 중심부의 축소판인 '환승역'을 조명했다. 총 9개의 환승역을 지역사와 지역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근대 부산을 배경으로 철도와 관부연락선의 등장 이후 시작된 교통의 환승 역사를 전한다.

문화누리카드 2만원 인상, 13만원 충전!(1.26)

2024년 문화누리카드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되어 1인 연간 13만원이 지급된다. 부산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분야가 맹점은 총 1,800여 개가 등록돼 있다. 특히 5월부터는 광안리어방축제, 6월 한우불고기축제, 10월 고등어축제, 자갈치축제 등 축제 기간 내 푸드트럭, 지역 특산물도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누리 카드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은 당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부산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참여예술의
거점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2.1)**

재단은 '2024년도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해 지역의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단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문화재단-BNK부산은행
부산문화예술 발전기금 전달식 진행(3.5)**

BNK부산은행은 부산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재단에 기부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인 콘텐츠 소비 하루 3시간, 월 39,67원...
어떤 콘텐츠에? “유튜브에 시간쓰고 OTT에
돈 쓰고”(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이 발표한 '콘텐츠산업 동향 브리프 24-1호'에서 한국인의 콘텐츠 소비량 및 시간을 분석한 결과, 소비시간은 하루 3.05시간(주 21.3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28%가 유튜브 동영상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39,673원을 동영상 소비에 지출하고 있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캐나다에서 주목받는 한반도 DMZ 관련
미술전시(1.2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재외한 국문화원, 해외 예술 기관들과 함께 국내의 우수한 공연 및 전시를 해외에 소개하는 '트래블링 코리아 아트' 사업의 일환 진행된 '리얼 DMZ 프로젝트' 전시 《경계협상》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캐나다의 온라인 미술매거진 '아킴보(Akimbo)'에서는 본 전시가 "가장 중요한 미술전시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본 전시는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인 비무장지대의 현실과 작가들의 상상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새로운 시각으로 DMZ를 재현했으며 총 16팀의 작가가 참여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미래비전 발표(3.15)**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이라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재단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며, 예술인에게는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시민에게는 문화향유 확대, 본격적인 ESG 경영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강원문화재단

**창립 25주년, '강원문화 청춘으로'
미래 25년 도약!(2.7)**

강원문화재단은 2024년 창립 25주년을 맞아 '강원문화 청춘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4대 전략과 제와 13개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강원 문화예술 정책 발굴 및 광역문화재단 역할 강화, 강원 문화예술 인프라 기반 강화, 강원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ESG경영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천문화재단

**시민의 문화향유와
주체적 문화 활동의 기록(1.15)**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시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과 특색 있는 문화 향유의 기록을 담아 <2023 문화기획프로젝트 : 시민x> 사업의 결과자료집을 재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동구·미추홀구 재개발 구역 이주민의 현황을 조사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강화군의 지역 소멸에 대해 고민하는 지역 문화 탐방 워크숍, 남동구 유수지의 저어새 생태계 탐구 등, 지난해 인천 곳곳에서 시민 주체로 운영된 생활문화 프로젝트들로 모두 인천문화재단이 추진한 <문화기획프로젝트 : 시민x>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의 부제에 '시민x'에서 x는 시민과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기 위한 의미로, 다양한 공간과 기초문화재단이 모여 총 2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부산관광공사

**야간명소 이벤트 진행,
아름다운 부산 야경을 국내·외에 알려(1.16)**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니콘이미징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부산의 야간 사진과 영상 등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국제명소형 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 부산을 국제적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소개하려는 계획이다.

문화정책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로컬로 턴
vol. 25 / 2024 Summer

지역과
기억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이슈

이슈

페이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지역은 기억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의 기억과 장소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지역이 가진 무형유산을 살펴보고,
특히 영도와 하단포구, 어촌마을의 기억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재학생들이 기획한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칼럼	
지역의 기억과 장소 사용법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36
이슈	
1. 부산무형유산의 기억과 전승 - 부산고분도리결립을 중심으로 김선영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전임강사	39
2. 지역 공간의 무한변신 - 영도의 문화복합공간 장혜원 / 쓰담 출판사 대표	43
3. 생명체로서의 마을을 마주한 아카이빙 - 하단포구, 문화路 있다. 탁경아 /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45
4. 부산에는 사이어촌마을이 살아있다. - 어촌의 문화적 도시재생 가능성 홍순연 / (주)로컬바이로컬 대표	48
사람과 현장	
부산, 원도심,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젝트 김주현 /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문화기획전공 조교수	51
연구보고서 돌아보기	
유희공간 문화재생,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55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58

지역의 기억과 장소 사용법

박소운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장소는 기억이 배인 공간이다. 그곳은 살던 집이기도 하고, 오밀조밀 어디론가 내달리던 골목 길이었다가, 학교, 문방구, 은행들이 있는 동네가 되고,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지역의 풍경이 되기도 한다.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을 통해 잊고 지냈던 사람과 추억들이 문득 다가 오는 것처럼, 장소 역시 사람, 경험, 감정이라는 사건을 통째로 간직하고 있는 타임캡슐이 될 때가 많다. 그와 같이 장소는 그곳이 간직한 기억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지역은 지역민의 일상 공간으로써 장소화 되며, 그때 장소의 기억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작동하게 된다.

부산이라는 지역은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까. 일제강점기의 개항도시, 한국전쟁기의 피란수도, 4월혁명의 진원지이자, 신발, 합판 등 제조업과 조선업, 원양어업으로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기억일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환기되고 출력된다.

부산 최초의 은행이었던 한성은행은 한성1918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되었고, 옛 경남도청은 석당박물관으로, 피란수도 때 정부청사는 임시수도기념관으로 남아있다. 미군정 문화정책의 심장이던 미문화원은 1980년대 미제국주의 타도 구호와 함께 던져진 화염병으로 그을렸었으나 지금은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이 되었다. 그 곁의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건물이 이곳의 본관이다. 원도심 중심부에 우뚝 솟은 민주공원은 민주화 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겨준다. 또, 2023년 12월, 일제강점기 한반도 수탈의 현장이자 한국전쟁 때 유엔군 투입과 유엔 원조의 통로, 산업화 시절 수출의 경로였던 제1부두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결정되기도 했다. 그뿐이겠는가. 아미동 비석마을과 중구, 동구의 산허리를 휘감는 산복도로 마을들은 피란민들의 팍팍한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장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각하게 해주는 역사의 거울이자 과거로 안내하는 지도다.

그동안 발전이라는 개발 담론 아래, 사라진 장소도 많다. 놀라운 것은 장소의 파괴는 기억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때 부산에서 주목받았던 옛 부산시청 건물, 럭키화학 공장, 일제강점기 금강공원 인근 서양풍 별장(히가시하라 가지로의 별장으로 추정됨)과 같은 건물뿐 아니라 동네 전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부산문화재단이 있는 감만동도 한국전쟁 때 이주한 피란민들,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근거지가 되었으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감만 1동 일대 부지인 41만 8,719㎡가 완전히 사라지고 9,092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미디어 아티스트 홍석진과 안무가 허경미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감만기억>은 이러한 감만동 일대의 흔적을 붙잡는 아카이브 작업이었다.

장소가 남는다는 것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장소의 소멸은 일상에서 해제되었기에 기억 속에 아스라이 잔류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사라지는 기억을 모으기 위해 부산일보는 2022년 10월 레코드 부산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열고 옛 도시 풍경과 사람들의 추억들을 담아 내고 있다. 그곳에서는 사라진 미화당백화점, 무아음악감상실, 동보서적 등의 장소를 지금의 감각 안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지역의 기억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지역이 나아갈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식자원이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있는 도시로 1950년에는 인구수가 185만명에 달하였으나 생산공장과 시설이 다른 지역과 해외로 이전되자 지역 경기 쇠퇴와 함께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도심이 공동화되었으며 마침내 2013년 7월, 디트로이트시는 파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 지방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지역의 건물이나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을 철거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재생시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빈 건물로 버려져 있던 소방서를 개조한 디트로이트 파운데이션 호텔(Detroit Foundation Hotel), 자동차 판매점을 개조한 디트로이트 현대미술관(MOCAD: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troit)을 들 수 있다. 자동차 제조도시라는 지역의 DNA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의 투자를 다시 일으켰다. 1988년 이후 문을 닫았던 미시간 중앙역이 포드에 의해 자동차 첨단 기술 개발 연구 시설로 재생되어 2024년 6월 뉴랩 앳 미시간 센트럴(Newlab at Michigan Central)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간직한 유니크한 공간 속에서 실업률 감소와 경제 회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방서를 리모델링한 디트로이트 파운데이션 호텔
출처: 디트로이트 파운데이션 호텔 홈페이지

한때 390만명(1995년 기준)에 육박했던 부산의 인구수도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산 구조의 변화, 저출생, 수도권 집중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320만명(2024년 4월 기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연평균 2만 3천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출생률도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0.66명(2023년 기준)이며, 고령인구의 비율도 22.8%(2023년 기준)로 초고령사회 지표가 되는 20%를 넘고 말았다. 인구 감소는 빈 공간의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디트로이트시의 사례처럼 이는 지역의 문화자원이 될 수도 있다.

장소는 기억을 인도하고, 기억은 지역의 정신적, 정서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은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활용할 것인가. 빈 건물과 폐관된 시설은 경제 논리로 허물어 버릴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공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 이때,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관광사업의 결은 달라야 한다. 두 사업의 목적과 추진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관광사업은 관광객 유입을 활발하게 하여 경제적 수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 수익 확대가 목적이라면 빌바오나 시드니의 사례처럼, 이전에 없던,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볼 거리를 만들어야하겠지만, 지역의 장소 기억은 지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일상공간으로 재생되는 것이 그 기억을 더욱 자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옛 한성은행이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된다는지,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변모하면서 1층에 카페를 들여 개방감을 높이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본다.

또한 지역의 기억은 유·무형유산처럼 자긍심을 높이기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을 되새기는 일도 될 것이다. 영광의 기억만 남긴다면, 후세는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기업인 타테이시의 옛 주택을 중구문화원으로 개원하여 지역민의 문화사랑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예이다.

한편 시민의 미시사, 즉 마을 기억의 문화화 작업도 중요하다. 산복도로 피란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나 감천 태극도 마을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조성한 감천 문화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삶의 쾌적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칫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관광사업이 방향성을 잃고 혼용될 경우, 오버투어리즘이나 슬럼 투어와 같은 폐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장소는 기억의 저장소이고, 기억은 미래에 남길 지혜이므로, 지역의 장소들은 그 기억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오늘의 기억을 만들어 간다.



(좌) 부산근현대역사관(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 (우) 부산중구문화원 안뜰(옛 타테이시 주택)
출처: 박소윤

부산무형유산의 기억과 전승

-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중심으로

김선영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전임강사 · 부산고분도리걸립 전수장학생

부산고분도리걸립이 간직한 부산의 기억

2024년 2월 13일(음력 정월 초사흘)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충무동 새벽시장, 이른 아침부터 걸립패들의 악기 소리가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기 위한 부산고분도리걸립 지신밟기 행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우수 선생(1948년생,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 상쇠 및 풀이 예능보유자)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유입된 풍물꾼들이 모여서 고분도리걸립을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지신밟기, 걸립굿을 해왔고, 걸립을 할 때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이 1860년대에 서구 서대신동에 세워졌다는 『시약산 산제당 약사』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고분도리걸립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걸립굿이 일제강점기 동안 쇠퇴하였다가 정우수 선생의 말처럼, 전국의 풍물꾼들이 부산으로 피란을 오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걸립지신밟기 소리의 달인이었던 유삼룡 선생(1898~1970)과 아미동에 거주하던 농악의 명인 이명철 선생(1905~1973)이 기능에 뛰어난 단원들을 모아 1952년 아미농악단을 창단하게 된 것이다.

아미동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었던 곳으로, 고향을 떠나 한반도의 끝자락 부산에 와서, 모르는 이의 무덤가에 기대어 사는 피란살이는 신산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그 시절, 아미농악단은 재액초복(災厄招福) 혹은 벽사진경(辟邪進慶)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령스러운 풍물굿으로 이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 줬을 것이다.

성주신 일대기를 자세히 묘사한 성주풀이, 용왕굿, 채상모 소고놀이와 들벅구놀이가 함께 병용된 춤사위 등 전국 각지의 기예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분도리(서대신동의 옛 지명)와 아미동에서 한 물결로 만나 되살아난 것이다.

이러한 아미농악에서 연희농악 구성으로 1980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부산농악이 먼저 지정받았고, 이후 부산 서구 일대에 예부터 행해오던 지신밟기를 걸립 풍물굿으로 발전시켜

2011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8호로 부산고분도리걸립이 지정됐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지신밟기에 들어가기 전 의례적 절차를 먼저 밟는데, 현재에도 그 터와 제당이 남아있는 서대신동의 당산에 가서 당산굿을 올리고 당산신의 가호를 농기에 받아 마을의 가가호호를 돌며 안가태평(安家太平)을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다른 지역의 지신밟기에는 없는 과정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바다를 향해 축원하는 ‘용왕굿’을 지내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의 서구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남향과 인접하여 다수의 지역민들이 어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했고, 이에 배가 출항할 때 어부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굿’이 부산고분도리걸립 전체 연희에서도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고로 오늘날 부산 서구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은 충무동 새벽시장에서의 부산고분도리걸립 신년 첫 지신밟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1950년대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 배에서 내린 어류 등을 광주리에 이고 나와 팔기 시작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충무동 새벽시장 상인들의 기억 속 새해 정초의 풍경에는 언제나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지신밟기가 있었다. 2024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장사가 잘되기를, 가정에 건강과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우렁찬 걸립패의 악기 소리와 상쇠의 풀이 “악귀 잡신은 물 알로 가고 만복수복(萬福修福)만 이리 오소”가 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그런 걸립패의 축원에 덩달아 어깨춤을 추는 상인들을 보면, 우리의 민속문화는 여전히 삶터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미농악단, 아미 1동 동사무소 낙성식(개원식), 1963년 2월
출처: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무형문화유산 전승, 멀어도 가야 할 길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오롯이 전승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지역 공동체의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그리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꾀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문화재 지원정책은 우리의 민속문화가 전승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주었다.

2024년 현재 부산에는 국가무형문화유산 6종목, 시 지정 무형문화유산 25종목이 있으며 총 5개소의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부산시의 무형문화유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가 운영하는 구덕민속예술관에

서 <부산농악>, <구덕망개소리>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전승 교육과 지역민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향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 시행된 부산민속예술제, 무형문화재 달빛나들이 공연, 일상 속 공간으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토요일 전통민속놀이마당 공연 등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계	국가지정문화재(87)							국가 등록 문화재	시지정문화재(311)				문화재 자료	시 등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명승	국가 무형 문화재	국가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551	8	56	6	7	2	6	2	22	215	25	52	19	127	4

[표 1] 부산시 문화재 현황('24. 1. 1 기준, 단위: 건)
출처: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서



부산고분도리걸립 공연장면
출처: 안창림

지난 5월 ‘2024 부산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앞선 행사들이 우리 전통민속예술 고유의 흥과 맛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연의 형태라면 ‘2024 부산민속예술경연대회’는 그 결이 조금은 다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해 온 시 무형유산 전수학교 및 지역의 모든 전승단체(보존회)가 참여하는 경연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1972년을 시작으로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청소년부는 40회, 일반부는 52회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 경연대회의 최우수 2개 팀은 부산시 대표로 전국대회인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금이 주어진다. 그러한 연유로 부산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유산 전수학교 학생들과 시지정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책임지고 있는 각 보존회 회원들의 전승교육 성과 공유와 함께 민속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독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 하겠다.

대회일자	참여부분	참가팀(개)	출연인원(명)
2015 (5.21 ~ 23)	청소년부	26팀(초등 8, 중등 3, 고등 10, 대학 5)	1,000
	일반부	14팀	600
2024 (5.25 ~ 26)	청소년부	10팀(초등 5, 중등 0, 고등 3, 대학 2)	331
	일반부	14팀	566

[표 2] 부산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현황 비교
출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2015, 2024년 보도자료 참조

지역 공간의 무한변신

- 영도의 문화복합공간

장혜원

쓰담 출판사 대표

살아가는 공간, 사라지는 공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도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하며 변화하고 있다. 사라지는 공간을 볼 때면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기억마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인구의 감소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이 유향되고,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폐산업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유향공간이 증가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공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지역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유향공간의 활용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히든카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공간을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짓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해 리노베이션하기에 지역의 상징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문화를 만들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영도의 과거를 넘어 현재로

부산은 항만도시이며,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온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중 부산의 영도는 영도만이 가진 지역적 헤리티지를 잘 활용하기로 유명하다. 영도도 시대의 흐름을 빚겨갈 순 없기에 다양한 형태의 유향공간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찾아와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하고 있다. 영도 그 자체가 리빙랩이 된 느낌이다. 영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조선소가 생긴 곳으로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관련한 폐산업시설이 많이 생겼다. 폐산업시설은 유향공간이 되기 전 부산을 이끌었던 주요 산업시설이었던 기억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유향공간을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많다.

영도의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은 '무명 일기'는 1959년에 지어진 근대항만 보세창고를 개조한 공간이다. 2018년에 오픈하여 카페로 운영하면서 문화 공연, 예술 전시 및 각종 커뮤니티 행

일반부의 참여 단체와 출연인원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청소년부는 2015년 26개팀 참여, 1,000여 명 출연에서 10여 년 만에 2024년 기준 10개팀 참여, 331명 출연으로 축소되었으며, 올해 중등 교급은 단 한 팀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14개 종목 중 청소년부는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전수학교의 감소로 7개 종목만이 출연하여 큰 우려를 남겼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이슈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대학의 예술 관련 학과 폐과), 무형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부재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한 몇몇 학생들은 "재미없다, 촌스럽다,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힘들기만 하다,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우리 전통민속예술이 우수하다 한들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한 시대의 옛 흔적인 역사 교과서나 동영상으로만 기록되지 않을까.

아이 한 명을 키워내는데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듯, 지역의 특색과 가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기량이 뛰어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전 세대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¹를 기획, 개발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할 때이다. 모든 마을의 구성원이 정초 지신밟기에 참여했던 그때처럼,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과 주민들이 다 함께 서로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사물악기 장단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미래를 꿈꾸길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먼 미래가 두려워 할 문화의 종(種)이기 때문이다.

¹ 예시) 부산고분도리걸립 우물굿 '비나니요 비나니요 우물님 전에 비나니요/이 샘에 청정수 마시 거들랑 수명장수를 점지하소/비나니요 비나니요 새미님전에 비나니요/칠년대한 가을에도 풍덩풍 덩 솟아나소' :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식수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으로 환경보호를 큰 주제로 물 부족, 식수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한 초등교육과정 적용 가능.

사를 개최하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다. 영도의 지역성 특색을 지닌 공간을 리노베이션하고, 그곳에서 무형의 영도 지역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고자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기에 그 가치가 크다. 대표적으로 특별한 경험형 미식 콘텐츠 '영도 소반'이 있다. 과거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삶의 흔적이 담긴 영도의 이야기를 건강한 음식을 통해 표현하여 제작한 콘텐츠이다. 김미연 대표와 '무명 일기' 프로젝트를 함께한 오재민 대표는 영도의 역사와 산업, 삶 모두를 담고 있는 봉래동 물양장의 바지선을 활용하여 해상정원 및 문화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도 동삼동의 노후 된 수리조선소 자리에는 방주 모양의 '피아크'라는 복합문화공간이 자리 잡았다. 마치 대형 선박이 육지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배를 모티브로 설계해 내부에서도 마치 승선한 느낌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획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침체되었던 조선업을 몸소 느낀 부산의 수리 선박 기업 '제일SR그룹'에서 도시 문화 콘텐츠 전문 기업 '어반플레이'와 협업하여 만든 곳이기 때문이다. 영도 지역에 뿌리를 둔 '제일SR그룹'은 버려진 공간에 그룹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피아크(P.ARK)는 Platform of ARK for creators의 줄임말로 창작자를 위한 방주가 되겠다는 의미와 알파벳 그대로 읽어 '공원(Park)'이라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편안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아크는 F&B를 넘어 문화, 예술, 전시,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각자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한다.



영도의 문화복합공간 '무명 일기'의 리모델링 전후
출처: 무명 일기 대표

함께 상생하기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2021년 진행했던 영도 문화도시 연결포럼 <도시정책, 문화로 이어지다>의 다섯 번째 포럼의 주제가 흥미로웠다. '폐조선소, 멈춰진 역사에서 문화공간으로'라는 주제였는데, 부산일보 2021년 2월 23일자 기사 "세금 때문에... '폐조선소 문화공간 전환' 실패로 끝나"를 계기로 열렸다고 한다. 1998년 설립된 거창 조선소는 조선업 하락세에 2017년 조선소 운영을 중단하고 문화공간으로 개조하여 2019년 3월부터 지역의 예술 공연 장소로 주목 받은 곳이다. 하지만 전시와 공연, 영화 촬영 장소 등으로 활용되던 곳이 재산세 폭탄으로 세금 제도에 막혀 식품회사의 제조공장으로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유휴공간이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용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는 만큼 공간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생명체로서의 마을을 마주한 아카이빙 - 하단포구, 문화路 있다.

탁경아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지역성을 담은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기 위한 고민

부산의 사하구에 거주지를 두고 이곳에 정착한지 18여 년이 되었다. 지역민들과의 커뮤니티와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람, 역사, 놀이, 치유 등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왔고 항상 '지역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기획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이즈음 지역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2019년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으로 이곳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옛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직접 수집하고 기록하여 『하단을 담은 이야기』라는 책자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을활동가, 학부모, 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 편집단이 구성되어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후 사업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몇 참여한 주민들로부터의 못내 아쉬운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다. 지역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지역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주민들의 아쉬움으로부터 그 답을 찾게 되었다. 흔적만 남은 '하단포구'를 주제로 지역을 지역민이 직접 이야기하고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한 '아카이빙'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

흔적만 남겨진 하단포구

하단포구는 조선시대부터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여 내륙 지방에 운반되던 물류의 중심지이자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구포를 거쳐 안동까지 이어지는 뱃길의 출발지였다. 인근 명지 염전에서 생산되던 소금과 갈대를 이용한 제품 등을 모아 상류로 보내던 포구이기도 했다. 이곳을 출발점으로 조선시대의 물동량이나 사람들의 왕래로 인한 장(場)이 섰던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2일, 7일이 되면 꽤 큰 규모로 오일장이 서는 '하단상설오일장'의 근원이 되었던 포구였다. 하지만 김정환 선생님의 소설 『모래톱 이야기』에서처럼 해마다 겪게 되는 낙동강의 홍수로 모래톱이 점점 높아지고 갈수록 포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포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현재 나루터가 있던 곳은 햇님공원이 되었으며 그곳에는 하단 포구를 기념하기 위해 세

운 ‘하단포비’ 하나가 전부이다.¹



현재의 하단포구의 모습
출처: 탁경아

생명체를 가진 마을

마을은 새롭게 태어나고 사라지며, 성장, 쇠퇴해져가는 생명체와 같다. 그러한 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며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하단포구와 낙동강 일대의 생태공원들을 들여다보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하구 지역 일대가 견뎌온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대티고개를 넘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 관심 밖이었다. 강과 바다를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1937년 대티고개 분뇨 수집장이 들어서며 그 내용물은 관을 통해 낙동강으로 배출되었다. 현재 하단의 본병원에서 하단 오거리를 지나 올해 완공이 된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 복합센터’, 바로 하단포구를 지나는 길이다. 이곳은 ‘똥동네’로 불릴 만큼 소외되었고 부산에서도 가장 배제되어 왔던 서부권 지역, 사하구이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모래톱 인근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상처를 안고 살아간 주민들의 애처롭고 척박한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이기도 했다. 수문을 지나 을숙도 문화회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을숙도 생태공원은 해질녘의 아름다운 노을과 철새들의 비상은 숨을 멎게 할 만큼 감동의 색채를 연출하는 장관이다. 그러나 이곳은 1993년부터 부산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한 매립장이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비만 오면 새어 나온다는 침출수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픔과 상실을 품은 그대로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안아준다.

우리가 접근한 아카이빙은 단순한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가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생애와 회노애락을 함께 하는 삶이며 연결, 지지, 공감의 동질감을 이해하는 것이다.

¹ 하단1동 주민자치회(2019), 『하단을 담은 이야기들』

다 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우선 지역자원의 분류를 공간, 사람, 이야기로 나누어 “첫째 포구, 길을 잇다, 둘째 포구, 시장을 잇다, 셋째 포구, 사람을 잇다, 넷째 포구, 이야기를 잇다, 다섯째 포구, 문화로 잇다” 라는 다섯 개의 주제로 접근하였다. 하단포구의 유래와 역사, 사례연구 및 하단동의 마을답사, 주민들과 오일장의 상인들을 만나며 마을 자원을 찾고 마을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원들은 하단포구를 거점으로 매립으로 사라진 길, 새로 이어진 길, 자리를 옮겼지만 포구로 시작이 된 하단오일장, 그리고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을숙도 생태공원까지 아카이빙을 통한 3가지 테마로 축소하여 정리되었고 ▲포구를 듣다 - 세물머리 하단 ▲시장을 보다 - 하단오일장 ▲자연을 지키다 - 을숙도 생태공원 철새도래지라는 주제로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투어 코스’가 만들어졌다. 코스의 각 위치마다 아카이빙한 자료로 거점의 생애를 설명하였고, 이 코스는 결과발표회의 마을축제 당시 주민들과 코스를 돌며 실제로 진행해 보기도 했다.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고 매일 지나가는 골목 곳곳의 숨어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반가움과 새로운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히 진행 과정속에서 인터뷰한 황포돛배 조선명장이신 김창명 선생님은 고령 입에도 불구하고 황포돛배(황포돛배의 원조가 하단돛배라 할 만큼 그 특별함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시다)를 지금까지 제작하시고 곳곳에 체험을 직접 다니시며 이음과 전수에 각별하셨다. 투어 당시 주민 참여자들은 마을에서 황포돛을 직접 올리고 내리는 장관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투어 지도 만들기
출처: 탁경아

하단포구에 대한 현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2023년도에는 사운드 아카이빙의 결합을 시도했다. 지역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었다.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역민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생로병사를 알아가고, 곧 사라질 현재 기억들을 기록으로 전환하는 아카이빙의 다양한 시도들은 미완성이지만 현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음 세대의 문화전달로서 갖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산에는 사이어촌마을이 살아있다. - 어촌의 문화적 도시재생 가능성

홍순연

(주)로컬바이로컬 대표

5월의 기장은 다시마를 말리는 모습으로 장관을 이룬다. 텅 비어있던 중동항 물량장도 빈틈없이 다시마로 꽉 채워져 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펼쳐진 다시마는 봄 햇빛을 쬔다. 하루를 보내고 다시 건조기에 들어가 말린 후 가공을 통해 우리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친다. 기장사람들의 1년 바다 농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기장은 전통적인 반농반어마을로 바다농사뿐만 아니라 쪽파, 옥수수까지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부산의 사이어촌마을이다. 이곳에 정착한 것도 이제 약 9개월에 이르게 되면서 일반적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의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산임에도 부산이 아닌듯한 낯선 일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장 문동항 물량장 전경
출처: 홍순연

어촌신활력 사업의 시작

2023년 겨울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어촌재생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기업 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 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수산업-어촌 발

전기본법」에 의한 어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촌공동체 중심으로 어촌계를 비롯해 부녀회, 마을자치회, 청년회 등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변의 지역으로 확장하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에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다르게 어촌생활권은 주변 지역 간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찾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생태계를 재편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마을과 연결한 마을, 동일한 어업권을 가지거나 수산업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로, 도보권을 기준으로 중심 어항에서 5km 내외로 범주를 정하였으며 그 주변생활권을 서로 연계하고 생활서비스를 전달하고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특이점은 이를 관주도적인 사업이 아닌 추진조직에서 앵커와 링커의 개념을 통해 조직화를 재설정하여 지역 내 전문가 그룹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역 내 참여그룹은 문화, 복지, 건강 등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조직들의 역할 또한 다양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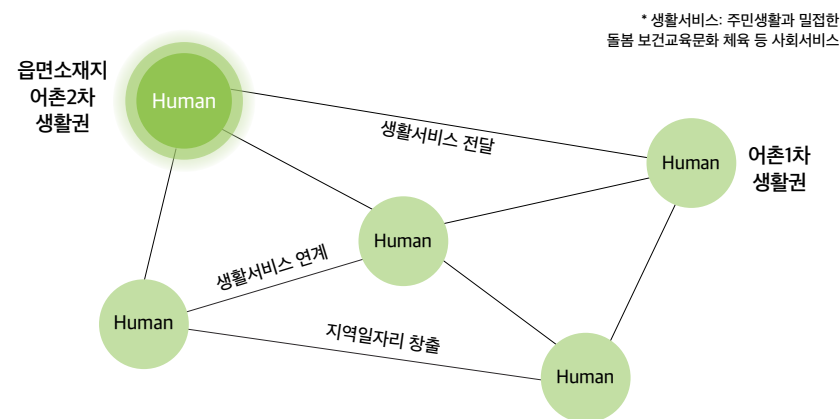


그림. 어촌신활력사업 생활권 연계 방안(자체도식)

결국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어촌의 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 인구 유입과 지역소재 기업과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촌생활권 내에 어촌스테이션이라는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전달 및 로컬 창업, 로컬관광까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수립과 다양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전략 및 실행가능성을 기반으로 약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서는 2023년 기장 문동항이 선정되어 생태, 에너지, 생활서비스 부분과 더불어 경제 환경을 재편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사이어촌 마을 기장 문동항

기장 문동항은 상업공간으로 집객이 이뤄지는 칠암과 임랑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전통적인 어촌마을이다. 사이어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도시와는 가까운 곳에 있으나 삶의 방식

부산, 원도심,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젝트

김주현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문화기획전공 조교수

은 어촌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도시의 끝자락, 어촌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사이어촌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장문동항의 경우 “회복과 공존의 바다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스터플랜수립부터 현장운영까지 (주)로컬바이로컬과 플랜비예술문화협동조합이 앵커기업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처음 문동항에 간판을 걸고 터를 잡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존 도시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과 달리 어촌은 빠른 움직임보다는 바다의 날씨와 재배되는 작물의 수확에 따라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마을 반상회를 하려고 해도 미역, 다시마철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면 안 되는 것을 겨우 10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역할분담이 잘 되어있어 경우에 따라 어촌계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쪽파잡목반장님, 1반부터 4반까지 반장님들, 노인회회장님, 해녀회장님 등 작은 조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을 파악해나가는 것 또한 경험과 실수로 커뮤니티를 연결해나가고 있다. 초기 4명의 상주인원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여 진행되었으나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역할이 주 업무가 되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성과도 있었다. 지역의 링커그룹간의 모임임 ‘안녕하세요 문동입니다’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복지, 재생, 디자인그룹들이 참여하여 함께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동사랑방과 ‘문오성마을학교’에서는 한글교실, 가드닝, 맨손체조 등 지역주민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의 원물을 활용한 시제품화와 문동지역만의 달력을 제작하기 위한 아카이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동지역 내 작가, 공방을 운영하는 팀들과 협업하여 현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 올해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어촌마을에서 재생적 결합은 가장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문화적 부분 또한 생활문화와 공간문화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크지 않지만 작은 모임에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적 통합이 필요하다. 경계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금도 도시와 다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어촌 재생을 진행하고 있다.



링커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문동입니다’
출처: 홍순연

부산 원도심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여섯 팀의 문화기획자들(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부산 원도심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떠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지역 청년들인 그들의 창의적인 시도들을 통해 부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들의 노력이 부산 원도심의 재생과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를 함께 탐구해보았다.

부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실행된다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 1팀 어린이와 함께하는 부산 중앙동 동화책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과거 중앙동은 인쇄업이 번성했던 원도심이기에, 과거 인쇄소를 다시 활용해보고자 ‘동화책 제작’이라는 아이디어가 도출됐습니다. 어른의 시선이 아닌 순수하고 창의적인 어린이만의 차별화된 시선을 추가하였으며, 실제 원도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와 함께 동화책을 만들어 원도심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어린이 작가들은 중앙동을 열린 마음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중앙동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앙동 인쇄소의 활성화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팀 원도심 테마를 활용한 커스텀 칵테일 제작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명칭은 칵테일로 눈과 코와 입을 칠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칠하고, 노래를 들으며 귀를 칠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도심 오색칠’로 정했습니다. 이는 원도심의 테마 공간의 역사와 의미, 분위기 등을 칵테일로 표현해보고 관객들과 테마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음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커스텀 칵테일바’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 3팀 저희는 부산 중앙동의 예스립고 빈티지한 분위기를 잘 담을 수 있는 ‘빈티지 스냅 촬영’을 주

INTERVIEW

제로 진행했습니다. 20~30대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부산에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에게도 부산 원도심의 매력을 잘 느끼실 수 있게, 또 행복한 순간을 예쁜 사진으로 남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면 어떨지 상상하며 기획하다 보니 팀원 모두 매우 기분 좋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로 중앙동이 스냅 촬영 명소로 유명해지면 유동 인구 증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냅촬영의 컨셉인 '빈티지스러움'이라는 브랜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방문율과 외국 관광객 유치 등의 기대 효과도 다수 있습니다.

4팀 부산 원도심 중 인쇄 골목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쇄 골목이 활발히 이용되던 시기와 그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다양한 이유로 그곳을 방문하던 주변 회사 사람들, 디지털인쇄로의 전환과 그로 인해 기존 중앙동 인쇄 골목의 쇠퇴과정과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된 보드게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아직도 다양한 인쇄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종이 인쇄물은 대체 불가능한 감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보드게임이 아닌 종이로 된 실물 보드게임을 제작함으로써 인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5팀 '노포'를 주제로 매거진 제작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중앙동이 과거 원도심이었던 만큼 오래된 전통을 지닌 가게가 많았습니다. '해당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고, 매거진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동의 이야기와 오래된 가게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엮어 레트로 감성의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주요 키워드로 잡고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매거진이 실제로 제작된다면 많은 대학생이 중앙동의 가게를 방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팀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의 역사적 자원을 재해석하여 '스트리트 퍼포먼스 : 20세기, 원도심을 만나다.'를 기획하였습니다. 부산 원도심은 근현대 역사적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자원이 일방적인 정보의 나열이 되어버린다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트리트 퍼포먼스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적 자원에서 '재미'의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스트리트 퍼포먼스 : 20세기, 원도심을 만나다.'는 체험형 관광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지지 못했던 감수성을 자극하여 지역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성대 글로벌문화학부의
원도심 현장탐방 - 인쇄 골목

경성대 글로벌문화학부의
원도심 현장탐방 - 40계단



原都心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며 바라본
부산 원도심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1팀** 옛날 건물들 속에서 역사를 엿볼 수 있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동 40계단은 문화관광 테마거리로 지정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만큼 우리는 잘 알지 못해 아쉬웠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창작공간(또따또가)을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이뤄나가는 사업을 하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2팀** 칵테일 테마로 지정한 보수동 책방골목은 부산의 문화적 뿌리와 지식의 저장고 같은 곳으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마인 중앙동 40계단은 부산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장소마다 고유의 매력을 칵테일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오색칠'을 통해 부산 원도심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3팀**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전과 후 사뭇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유명 관광지와는 대비되는 척척한 모습과 동시에 역사적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대중이 즐길거리가 부족하다 느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교통편과 많은 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에 큰 가능성을 보았고, 원도심이 신대륙을 발견한 듯한 이미지로 바뀌어 흥미진진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4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바라본 원도심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과거 그 공간이 어땠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도시 속 다른 공간들과는 달랐습니다. 원도심은 도시가 변화하기 전의 모습은 간직한 채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과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가 축적되어가며 고유의 분위기를 형성해나가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5팀 중앙동 40계단을 중심으로 현장 탐방했었습니다. 예전 피난길의 중심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니 활력이 없는 상가들이 마치 시들어가는 꽃처럼 공허한 느낌을 줍니다. 다 같이 중앙동을 탐사하며 노포를 주제로 다양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를 간직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발견했고 이를 중심으로 유동 인구, 청년층을 위주로 기획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는 부산 원도심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팀 처음 부산 원도심에 대한 이미지는 낙후된 곳, 노후화된 곳, 즐길거리가 없는 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곳을 탐방하고 정보를 찾다 보니 원도심은 생각보다 20~30대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포 맛집, 요즘 핫한 레트로 감성의 거리 및 카페, 역사적 공간인 만큼 깔끔하게 정돈된 공원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보물 창고 같은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역의 상황을 창의적인 시도로 어떻게 개선하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며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들은 결국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그들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동의하며,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팀 소개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재학생들

1팀: 임한비, 이경민, 신수빈, 조가은

2팀: 박민진, 박지성, 신지혜, 유예진, 이영경

3팀: 손혜리, 안창준, 한의정, 현예승

4팀: 박기덕, 조민정, 노대현, 한수현

5팀: 김건우, 김영건, 문선아, 김기빈, 김태원

6팀: 김준호, 최윤우, 송화림, 이은서

유희공간 문화재생,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지역문화진흥원(2021),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이소민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도시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유희공간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 산업용 부지, 미개발된 도심 지역, 노후화된 공공 공간 등이 기존의 용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성의 장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적 불황, 인구 이동, 도시 계획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유희공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공간들은 단순히 도시에 방치된 장소가 아닌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잃고 버려진 건물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보면, 역사적 상징성, 사회 문화적 의미, 지역사회의 기록 등이 남아 시대의 흔적을 가진 장소성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유희공간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대 도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2021년 지역문화진흥원이 발간한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이하 보고서)에 대해 톺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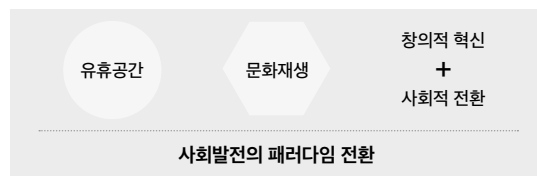
보고서는 각기 다른 부처 및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유희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최근 지방분권화 및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 환경변화에 걸맞게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생 조성 완료 운영시설 22개 대상지를 범위로 설정하여,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자 했다. 유희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으며, 각 부처의 다양한 유희공간 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통합 TF팀의 구성과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더불어 유희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생성된 장소와 지역의 연결과 지역 간 앵커시설의 교류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문화와 사회의 연결을 통한 창의적 혁신 및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

RESEARCH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

보고서에는 함께 살펴볼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번 보고서에서 유휴공간 문화재생 정책을 정립하였다는 점이다. 그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 각개전투로 진행돼 왔기에 이번 개념 정립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정책이란,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효과로 사회발전을 위한 창의적 혁신과 사회적 전환을 이끌어내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나가는 문화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유휴공간을 단순히 공간적 관점에서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 혁신과 사회적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책적 지원과 주민 참여,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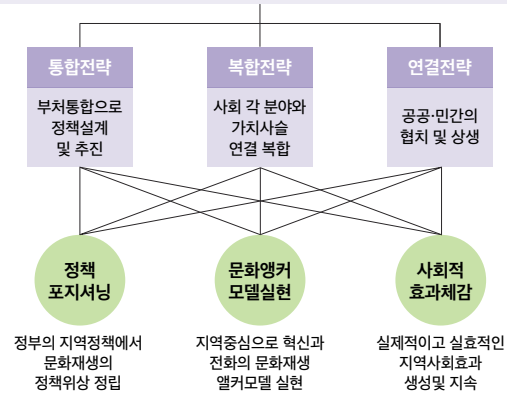
정책정의 장소기반 문화재생의 새로운 가치효과로 지역 혁신과 전환을 이끌어가는 정책



정책비전 문화재생, 지역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작의 중요 핵심

정책방향 사회활력 회복 : 장소기반 문화가치로 지역활력 회복 및 활성화 가치동력 전환 : 문화바탕으로 지역발전의 관점을 새롭게 전환 스타일의 혁신 : 지역중심의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방법론 지원 지역효과 창출 : 지역에 문화의 실제적인 효과를 발현하고 파급

추진전략



정책목표

출처: 지역문화진흥원(2021),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둘째, 추진방안에는 문화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별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그간의 지역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중앙-광역-지역’ 순의 전달체계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가 가진 유휴공간 자원은 매우 다양하다. 국토교통부의 폐역사 공간, 교육부의 폐교, 행정안전부의 교도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빈 농가 및 창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도심 유희상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폐산업단지 등이 있다. 각 부처별로 가진 자원을 모아 통합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통합 모델과 함께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생 촉진 방안을 담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재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주민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됐지만, 사실상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적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에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촘촘한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정책연결을 통한 지역문화 상생 추진방안에서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문화장소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새롭게 재탄생된 A지역의 앵커와 B지역에서의 문화재생 앵커장소를 서로 연결해 교류 및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그간 추진돼 온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버려진 공간을 단순히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더 나아가 앵커 장소 간 연결로 새로운 지역사회의 가치를 구축하고, 사회전환의 플랫폼을 만드는 등 확장된 의미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재생 앵커 간의 교류는 지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장점도 있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문화재생 앵커를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에만 편중될 위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앵커 지역 간의 이해관계와 목표가 다를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복잡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력 조정 위원회 또는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단순히 버려진 건물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너머의 시설 및 환경까지로 대상을 확장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건물 인근의 공터, 벤치와 같은 구조물, 숲, 수변 등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유휴공간 재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역 차원의 재생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예산 및 자원의 증가를 요구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 제2의 빌바오 꿈꾸기

용도를 상실한 유휴공간은 이전에 사용되던 용도와 함께 각 지역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러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서는 항구 도시로서의 역사와 해양 문화를 바탕으로 유휴공간을 재생할 수 있다. 폐산업단지나 빈 창고를 해양 문화 센터나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역사와 현대적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관점과 타 부처의 자원, 그리고 주민들과 협력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부산도 제2의 빌바오가 되지 않을까.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4. 04. ~ 06.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인공지능 - 저작권 기준,
전 세계에 알린다(4.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안내서는 ①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②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③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④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행사에서 적극 배포할 계획이다.

청와대 개방 2주년,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가치, 문화예술로 되새긴다(4.30)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그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시와 음악회, 다원예술 등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관람 수요에 맞춰 편의시설 확충, 외국인 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5.10)

문체부는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을 시범 운영한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한국문화사회학회
2024년 봄 학술대회 개최(4.23)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4월 26-27일 부산대학교 사회관에서 한국문화사회학회와 봄 학술대회를 공동주관해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더 중요해진 ‘연결’과 ‘관계’에 대한 문화사회학적인 논의를 갖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문화재단, 도요코인코리아(주)와
BS아티스테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4.30)

재단은 도요코인코리아(주)(대표이사 홍지명)와 BS아티스테이(Artist+Stay)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창작을 위한 출장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활동 범위 확대 및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 서울 지역 지정 숙소 이용 시 숙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일 10만 원 이내, 1인 최대 3박까지 지원해주며, 지정 숙소는 도요코인 서울의 강남, 동대문, 영등포이다.

“通, 하는 우리” 조선통신사 축제 개최(5.5)

재단은 5월 3-5일까지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와, F1963, 조선통신사역사관, 부산항연안 여객터미널 등에서 “通, 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2024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UNESCO의 정신인 ‘포용(inclusion)’, ‘다양성(diversity)’, ‘협력(cooperation)’을 주제의식으로 뱃길 탐방, 무용극 등의 공연,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특별전 등으로 시민들과 교류하며, 더불어 발달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모든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유아 예술교육 도서 발간(5.14)

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B.ART.E(문화예술교육 총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총서 『엄마랑 놀자! 예술로 놀자!』를 출간했다. 본 총서는 ‘예술놀이’가 왜 유아에게 필요하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유아교육 전문가의 담론과 일상 속 엄마 예술가의 에피소드,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예술놀이 활동지로 구성했다. 총서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제문화교류·문화ODA
중심 연구교류 확대한다(5.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은 한국공공외교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문화교류와 문화ODA 중심 연구네트워크 외연 확대에 나선다. 앞으로 연구자의 교류 및 협력,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공동연구 및 공동 관심분야 발굴과 정보 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손잡고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 시작(4.30)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하 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창룡)과 함께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 사업 <우리시각>에 참여할 예술가를 모집한다. <우리시각>은 발달장애 신진 미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억 5천만 원의 기부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예술인이 차별 없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전했다.

노들섬, 노들컬처클러스터 구축해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 노린다(5.24)

재단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노들컬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노들섬이 가진 다양한 공간과 재단이 20년간 쌓아온 문화예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근에 있는 기관, 기업들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서울의 새로운 문화예술 지도를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1호 협력기관은 아모레퍼시픽재단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으로 5월 23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에는 노들섬 내 꽃밭을 조성하는 아트가드닝 ‘노들섬, 꽃피우다’를 진행했으며, 6월 14일까지는 팝업 전시 ‘유행화장展’이 열려 노들섬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순환거버넌스와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4.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는 기후변화 중간을 맞이해 E-순환거버는 폐기되는 전자제품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예술위는 폐전자제품의 효과적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자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4년 기관 중장기 종합 혁신계획 수립(4.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진흥원)은 ‘2024년 기관 중장기 종합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4대 자율 혁신과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홍보 강화, 지역사회 ESG 선도, 국민 체감형 문화예술교육 재설계, 조직 역량 및 소통 강화로 이뤄져 있다. 또한 올해도 주니어 직급 직원을 중심으로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해 전사적 혁신 문화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과 각종 개선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4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참여자 모집(6.3)

문체부와 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24 아르떼 아카데미(ArtE Academy)’ 연수 참여자를 6월부터 본격 모집한다. 이는 예술교육 및 기획·행정인력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총 140개 과정으로 진행되고, 온·오프라인 연계 연수가 가능하다.

인천문화재단

예술현장에 묻는 ‘HOW ART YOU?’(5.27)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은 분야별 예술인 간담회 ‘HOW ART YOU?’를 개최해 인천 예술인과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예술현장에 답신하는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물론 예술인 복지 등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문화정책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로컬로 턴
vol. 26 / 2024 Autumn

지역과
다양성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이슈

페이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지역 내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문화다양성 정책, 배리어프리 예술,
포용성과 도시 발전, 세대 간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사상 이주민 반상회와 같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독자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럼	
다양성, 지역의 힘 창파 / 실험실 C 아트디렉터	64
이슈	
1. 부산의 문화다양성, 어떻게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가? 정보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67
2. ‘모두를 위한 도시’ 만들기 - 포용성과 포용도시 정현일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70
3. 지역의 세대 다양성을 위한 소통과 통합 장정윤 /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 역임	73
4. 춤추는 도로시, 어디까지 왔니? - 배리어프리,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대표 허경미 인터뷰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76
사람과 현장	
사상 이주민 반상회 김동규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80
연구보고서 톨아보기	
젠더 다양성과 성별영향평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리뷰 문재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여성학 협동과정 교수	83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86

다양성, 지역의 힘

창과

실험실 C 아트디렉터

사라지거나 단순하거나

지역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기수역이라 불리는 중간지대에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기수역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하구의 넓은 구역을 일컫는다. 부산에는 510km 길이의 거대한 낙동강이 흐르고 흘러 다대포의 바다와 조우하는 낙동강 하구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수역이었다. 1987년 하굿둑이 기수역의 순환을 가로막기 전까지, 짘물은 삼랑진을 향해 거뜰히 거슬러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낙동강 하구는 열린 하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¹ 그나마 2019년부터 9번 수문을 정기적으로 개방하면서 기수역의 자정능력(自淨能力)과 생태계 복원을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다행이다.² 실제로 기수역은 담수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이 산다. 사람 역시 기수역 주변에 터를 잡고 기대어 삶을 일구거나 생활사를 쌓아 왔다. 거대한 강 어귀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 오랜 세월 풍요의 공간이었다. 낙동강 하구는 “섬 대부분이 갈대밭과 습지로 이뤄진 동아시아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으며, “뱀장어, 흰배도라지, 실양태, 뱀뱀이, 멸치” 등 수백 종의 어류가 마르지 않던 곳이었다. 강이 운반한 모래에선 “씨알이 굵은 낙동강 재첩”이 자라던 장소였고,³ 기수역 질 좋은 물을 받아 소금가마에서 팔팔 끓여 고운 빛깔의 자염을 굽던 염전도 이곳에 있었다. 지금의 하구는 변했고 생태계는 단순해졌다.

중간지대

단순하다는 건 획일적이고 반복적이다. 갯벌이 매립되고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세워진 명지 지역에서 염전이 운영되던 1950년 지도와 2015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확실히 드러난다. 기수역은 단순할 수가 없다. 기수역 전역은 짘물과 민물이 섞이면서 여러 가지 염도의 층위가 형성된다. 그 염도는 0.5~30%(퍼밀·1천 분의 1)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계절이나 강수량 등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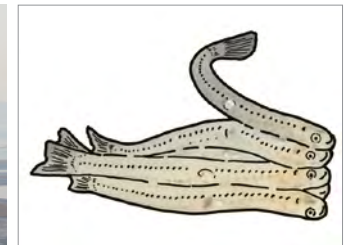
¹ 부산일보(2012.04.24.), “기수역 왜 중요한가”를 보자. 이 기사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를 복원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생생히 전해진다. 나는 기수역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아직 우리 곁에 재첩도 뱀장어도 연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² 한겨레(2024.03.15.), “낙동강 하굿둑은 어느 때나 다 열 수 있을까?”에서 낙동강 하굿둑은 10개의 수문 가운데 9번 수문을 음력 보름과 그믐의 대조기(사리)에 하루 2~4시간 정도 연다. 9번 수문을 통해 대조기에 짘물은 강으로 역류한다.

³ 한겨레, 위의 기사, 일부 인용.

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수역(汽水域)이란 이름은 염도가 낮은 민물과 염도가 높은 짘물이 교차하면서 서로 다른 농도 차이로 물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현상을 나타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수역을 오가는 생물은 점차 진해지거나 서서히 열어지는 염도에 유연하게 적응해 가며 염분을 조절하는 조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바다와 강 사이에서 일렁이는 물 아지랑이를 넘나들며 경계 감각을 확장한다. 기수역의 독특한 환경은 회유성어류나 염생식물처럼 다양한 초경계자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며, 이편과 저편을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게 하는 완충지대가 되어준다. 기수역의 저력은 다양성을 유발하는 중간지대에서 나온다. 그곳에는 경계를 넘나드는 초경계자들이 있다.

지난해 낙동강 하구와 기장의 일광천을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리서치하면서 기수역이던 두 곳을 비교해 관찰할 수 있었다. 낙동강 하구는 인공기수역⁴, 일광천은 열린 하천이다. 일광천은 10개 지류가 합쳐져 바다로 흘러간다. 그리고 밀물 때 일광천으로 바닷물이 올라온다. 일광천에는 매년 3월이 되면 바다에서 천으로 올라와서 돌 아래에 알을 낳는 사백어가 등장한다. 사백어는 몸길이 5cm 정도에 투명한 물고기이다. 일광천에서 태어난 사백어의 치어는 기수역에서 자라다가 일광 앞바다 잘피군락으로 돌아간다. 사백어 외에도 낙동강 하구와 일광천에서 먼 바다로 나가 산란하는 뱀장어는 기수역의 짘물에서 바다로의 항해를 준비한다. 사백어와 연어처럼 산란을 위해 민물로 들어오는 회유성어류 역시 기수역에서 민물에 적응해 간다. 기수역이 보여주는 순환은 중간지대의 포용력이라는 놀라운 역할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수역의 풍요로운 생물다양성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하지만 또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나에게 기수역은 다양성의 공간이다. 서서히 뒤섞이고 천천히 적응하며 다른 성질을 받아들이고 매개하는 능력, 이것은 다양성을 일구기 위한 태도이다.



(좌)낙동강 하구 2022
(우)초경계자들 회유성 어류 사백어
(출처 : 실험실 C)

⁴ 신영철(2013), 「4대강 하구의 속성 가치 추정-다항로짓모형에서 IIA가정의 검토와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524. ‘하구순환이 차단된 인공하구’라는 표현에서 가져왔다. 인공하구와 인공기수역은 낙동강처럼 하굿둑이나 보로 인해 자연순환이 훼손된 기수역이란 의미이다.

부산의 문화다양성, 어떻게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가?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경계 너머

모든 강은 바다로 모여든다. 하지만 바다로 흐르는 모든 강이 기수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하천은 3,835개, 그중에서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은 463개, 이 중 하구의 순환이 이뤄지는 열린 하구는 단 52%인 235곳에 불과하다.⁵ 1987년 이후 낙동강 하구는 인공적인 하구가 되었다. 짚물의 흐름이 인공적으로 차단되자 어종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일광천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리서치를 위해 일광천을 찾았던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몇 년 전 촬영된 사진 자료에 보이던 갯벌과 습지, 수풀이 우거진 여울은 이미 사라졌다. 물속 사정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하구를 매립하고, 강에 다리를 놓고, 자연공간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만든다. 단일하고 단순한 생태계만이 남게 된다. 이는 지구의 자정능력 상실로 이어진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비인간의 행위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지대에서 도약하기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에는 '영원한 아이들의 숲(Children's Eternal Rainforest)'이 있다. 이 숲은 또 다른 중간지대이다. 1987년 스웨덴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열대우림이 위협받는다라는 강연을 들은 아이들은 열대우림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고, 역도대회를 열고, 빵을 팔았다. 아이들은 300달러를 모았고, 약 1만 5천 평의 숲을 샀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다. 열대우림을 지키려는 아이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것이다. 모금 활동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여, 1992년에는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의 6천8백만 평의 열대우림을 구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숲을 지켜내자, 다양한 식물과 동물 종이 남게 되었고, 코스타리카 정부도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생태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생물종 가운데 50%가 서식하는 곳이며,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인 코스타리카에는 전 세계 동물 종의 5%가 살고 있다.⁶ '영원한 아이들의 숲'은 바나나 농장과 목장의 획일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보호된 중간지대에서 다양성의 도약은 시작된다. 다양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다양성은 기수역에도 아이들이 지켜낸 숲에도 지금 당신의 곁에도 있다. 중간지대는 단절된 것을 매개하고 다양성을 연결한다. 기수역의 중간지대가 다름을 섞어가며 여러 층위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듯이,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중간지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의 속도를 재정립하고 인간 바깥의 세계로 초경계적인 장을 열어야 한다. 그곳의 이름은 아마도 문화 기수역이 될 것이다.

⁵ ibid, 524.

⁶ 유영초(2005), 『숲에서 길을 묻다』, 한얼미디어, 15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사는 곳은 태어난 국가, 태어난 지역과 같나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나요? 혹시 사투리로 불리는 지역어(방언)를 사용하고 있나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명절이나 기념일 혹은 추모일을 보내는 지역(민족 또는 인종)만의 방식이 있나요?

우리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저마다의 출신지역과 하는 일, 관행과 습관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이러한 생활 방식, 함께 살아가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UNESCO, 2001)¹, 우리를 형성하는 모든 존재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은 조직이나 사회 내에 여러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체성과 존재방식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는데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협약(2005) 이후이다. 이 협약은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 가치와 그것이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게 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75%는 민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차원이고², 무력 충돌의 89%는 문화 간 대화가 부족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³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문화 그 자체의 발전을 넘어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과제이기도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은 경제 성장과 관련

¹ UNESCO(200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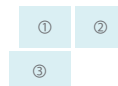
² <https://www.unesco.org/en/articles/world-day-cultural-diversity-dialogue-and-development>

³ UNESCO(2022) Measuring intercultural dialogue for peace and inclusion

된 효과도 인정받고 있는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미 조직이나 민간기업에서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에 주목하고 있고, 많은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들 : 항만도시, 도시활력과 경제적 성취

도시마다 역사, 지리, 인구특성, 시민사회의 활력 등이 다르다. 다양한 인구를 수용하는 국가들은(이하 예시는 시민의 1/3정도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남) 각국 또는 각 그룹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세계관을 강조하는 교류행사나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노팅힐 카니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DRONGO 페스티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설날 축제와 퍼레이드, 에스닉 페스티벌, 호주 토론토의 카리브 페스티벌, 시드니의 Living in Harmony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코리아타운, 리틀 도쿄, 보일 하이츠와 같이 문화정체성이 녹아있는 구역을 문화적 거주지(Ethnic enclave)로 지정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공식 언어를 4가지(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나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 ① 영국 런던
Notting Hill Carnival 2019
(photo by David Sedlecký, CC BY-SA 4.0)
- ② 호주 토론토
Some drummers hold a jam session near the Caribana parade route
(photo by Loozrboy, CC BY-SA 2.0)
- ③ 미국 샌프란시스코
Year of the Ox Chinese New Year Parade San Francisco 2009
(photo by David Yu, CC BY 2.0)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지역기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종교적 뿌리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한 도시에 모여들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도시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개방성이 높고 시민의 창의적 역량이 높은 경우가 많다. 모두 항구도시로 물자나 문화의 자유로운 교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지리적, 역사적으로 개방적일 수 있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는 자유와 창의적 활기를 근간으로 혁신적인 재능이 모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는 국제금융과 기술 중심지로서의 성과도 나타나면서 경제적 성취도 거두고 있다.

부산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어디쯤에 있는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만을 가진 항만도시이고,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이 모이면서 형성된 지리적·역사적으로 문화적인 다양성이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산은 앞서 살펴본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 사례를 닮아있다. 항만을 통해 국내외 문물과 문화를 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면서, 도시는 보다 활력을 가지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도 문화다양성이 부산의 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기회로 보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3개가 있는데 부산광역시도 2017년 전국 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실질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천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방비를 문화다양성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부산문화재단에 1억 8천만원의 부산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행사(문화다양성의 날, 컨퍼런스),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 지원은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산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부산이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대표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부산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지역어와 전통적인 관행, 풍습과 같은 문화적인 것들이 미래세대에도 잘 이어지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문화적 산물들의 획일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므로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인지하고 지속되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가치가 문화정책을 넘어 도시개발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매년 최다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역의 일자리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어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이 반영된 도시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상호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집단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조치를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더하여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가 결과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를 위한 도시’ 만들기

- 포용성과 포용도시

정현일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포용성의 시대

포용성(inclusivity)은 사회적 배제를 없애야 한다는 가치관, 접근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에서 배제된 이들, 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다양한 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과 논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포용성은 세계화와 경쟁질서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세계화와 경쟁질서는 한편에서는 풍요를 가져다줬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배제된 이들을 양산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를 계기로 포용성이란 가치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포용성은 전 세계 보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UN, OECD,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로마 바티칸 등 전 세계 주요 행위자가 포용성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동아시아에서도 포용성은 중요 가치이다. 한국은 2017년 포용적 혁신국가를 국가 아젠다로 제시했다. 중국의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 일본의 기시다 내각도 포용성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했다. 포용성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노동시장, 포용적 복지 등 다양한 개념과 정책을 낳으면서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용성의 다양한 세계

그렇다면 포용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포용성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감싸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포용해야 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논자는 사회적 배제의 책임을 소수자 개인에게 물으면서 현재의 사회구조에는 면죄부를 준다. 이 경우 포용의 의미는 소수자를 재교육하여 ‘자립’, ‘갱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논자는 사회적 배제를 양산하는 불평

등한 사회구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소수자 지원을 포용으로 이해한다.

포용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다. 어떤 논자는 소수자 개인의 도덕 교화나 취업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다른 논자는 소수자의 기본권·사회권 보장이나 복지서비스 혜택, 참정권을 제안한다. 국가마다 포용성은 다르게 해석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도시설 확보, 참정권처럼 최소한의 기본권과 관련된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청년 실업자 등 ‘풍요 속의 빈곤’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는 것과 결부된다.

이처럼 포용성은 다양한 접근, 해석, 정책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포용성을 정치적 용어, 그때그때의 정책 기조 변화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정책적 용어’라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포용성의 특징과 강점

그럼에도 포용성‘들이 공유하는 특징과 강점이 있다. 먼저, 배제된 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은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오늘날 배제된 이를 방치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는 지지받기 힘들다. 반면 배제된 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이상은 너무나 당위적이고 단순하며 이해하기도 쉽다. 그렇기에 정치, 경제, NGO,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행위자가 포용성에 관심을 두게 된다.

둘째, 효과적이면서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빈곤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 서만 찾곤 했다. 이에 반해 포용성은 사회-경제-정치-공간-환경 등 다양한 요인 간의 순환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열악한 주거 여건은 이동권과 신체건강을 악화시킨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실업, 빈곤을 낳고 그 결과 이들의 주거는 점차 슬럼과 게토(ghetto)가 된다. 각 요인이 서로에 대한 원인이자 결과이다. 문제의 해결도 이들의 선순환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기존의 정책에 비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했다.

포용도시: 포용성과 도시의 만남

포용성을 활용해 도시 발전을 모색하는 도시를 포용도시(inclusive city)라고 한다. 세계화와 경쟁질서는 도시를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 눈부신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에 포용성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시는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는 구체적 공간이자 정책적 실행단위이기에 정책의 기대 효과도 크다. 그러므로 포용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도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내 소수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참여율을 높인다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을 터이다.

포용도시도 다양한 모습을 띤다. 대표적으로 유엔 해비타트는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에 기반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선언하고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 포용도시를 제안했다. OECD는 시장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자나 실업자의 고용에 초점을 둔 포용도시를 제안했다.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수원, 대전, 안산, 창원 등 다양한 지자체가 포용도시를 추진했다. 국내 포용도시의 특징은 기존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일반시민, NGO와의 협력을 강조하나 그 토대가 기존의 도시정책이란 점이다. 이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많은 수의 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형성됐다. 청년 취업, 노인 재취업, 외국인 적응, 예술 지원,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등 각종 지원책도 늘었다. 이들 정책은 도시에 머물기 힘들었던 이들을 도시에 머물 수 있게 했고, 소수자와 시민의 역량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도시 발전의 가능성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졸자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투표 참여율, 공원 접근성, 공공기관 CCTV 설치 정책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용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포용성 정책의 이름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이는 포용성의 함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며 기존의 도시정책을 포용성 정책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포용성 그리고 포용도시의 한계: 포섭을 넘어 진정한 포용을 향하여

현재의 포용성, 포용도시에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사실 포용의 다른 번역어는 포섭(包攝)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포용성은 소수자를 가르쳐야 할 대상, 시혜의 대상,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곤 했다. 이는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억압과 통제, 동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등한 주체 간의 포용이 아닌 소수자를 억압하는 포섭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포용성의 긍정적 함의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너머를 상상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도시는 우리에게 새롭고 대안적인 집합적 '작품(oeuvre)'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정현일(2023), 『포용도시 담론의 형성과 구조』, 부산대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정현일(2023), 「포용성 담론의 전개와 재편: 신자유주의와 포용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26권 2호, 93-136.

지역의 세대 다양성을 위한 소통과 통합

장정윤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 역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노인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노인특위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 기여 방안을 다룬다. 윤대통령은 최근 당정대-통합위 만찬서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통합위의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략)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방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낮추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¹라고 한다.

지역사회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올바른 기여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이전에 지역 내 노인의 업무 능력의 쇠퇴,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우선 이해해야 한다. 노년은 능력의 쇠퇴에 대한 저항과 우월해지려는 욕망 그리고 자만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좌절되기 쉬운 시기이다. 더군다나 은퇴한 노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확실한 존재감을 낳고 더 나아가 상실감과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조성하기까지 한다. 더군다나 노년의 사회적 참여가 차단되고 노년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와 시선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의심해볼 일이다.

노인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게 된 정책적 제안과 그것의 적극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겠지만 지금 여기 부산지역의 노인과 청년의 공존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¹ 조선일보(2023. 10. 20), “尹이 힘써준 김한길, 노인의 사회적 기여 방안 모색한다”.

몇 달 전 어떤 기사를 읽었다. 예술창작지원금에 정년퇴임한 교수가 지원신청을 해서 많은 액수의 지원금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는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창작 활동하는 데에 있어 신세대의 반응은 다른 점이 보였다. 젊은 시절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인정받았고 정년퇴임을 한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를 묻는 등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느껴졌다. 그동안 쌓여온 세대 간 소통의 부재에도 갈등의 원인이 있겠으나 진정한 예술을 향한 태도가 무엇인지, 양보의 미덕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과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강점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다. 즉 과거로부터 살아온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높고 그 의미를 깊게 파악할 줄 안다. 그들의 풍부한 정신활동에서 얻는 현실적인 지혜를 젊은 층과 나눌 수 있는 상담이나 멘토링에 활용한다면 상호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노인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삶을 갈망한다.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가 하면 현대 사회의 새로운 기술에 맞는 사고방식과 협력체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배우며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노년의 의미, 변화에 기반해서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이용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노령화로 접어든 부산의 현실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원로 예술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들은 젊은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락을 경험한 인생 체험, 그것을 예술적 기량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²라고 하였다. 원로 예술인들의 사회봉사와 기여의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자존과 삶의 보람을 찾게 해서 “신세대와 구세대가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세대 간의 단절도 대화나 소통으로 극복하게 되어 세대 간의 조화를 일구어내는 거점 공간이 부산예술회관이 되리라 믿는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³ 부산의 문화는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과 훈효에서 변별력 있는 창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둔 생각이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거점 공간은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거점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다른 예로써, 나는 부산문화재단의 ‘2023감만창의문화촌 입주예술가모집’에 공모한 적이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안무멘토링’ 등이었다. 젊은 안무자들과 만나 그동안 쌓인 나의 안무경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조언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 신청했다. 그런 의지가 재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는지 통과되지 않았다. 심사평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도 알 수 없었으나 결국 세대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이나 소통과 통합의 의지가 전달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² 최상윤(2023). “부산예술회관의 태동과 그 책무”(『예술부산』 통권 72호, 2022). 『예술문화에의 불멘소리와 헛소리』, 세종출판사, 97.

³ ibid.

노인 천만 시대 노인의 역할을 찾고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원봉사가 있다. 청년과 더불어 갈 수 있는 노년의 한 역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원로 예술인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이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추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봉사활동 관련 일을 노인에게 찾아줄 수 있다면 노인의 역할이 좀 더 풍성해지고 지역사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노년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하고, 생산 가능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역할을 담당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노인을 의존적 존재, 사회에 짐이 되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노년의 역할 강화를 우선으로 지역의 세대 다양성을 위한 소통과 통합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젊음을 찬미하는 문화적 추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동양에서 인정하는 나이든 사람의 지혜와 성숙된 아름다움 그리고 축적된 풍부한 경험은 젊음을 찬미하는 문화권에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나이든 사람의 노련함과 날카로운 지혜가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생산성만 중요시되는 태도의 사회는 우리 삶을 인간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물질의 풍요보다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 더 놓일 때 우리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춤추는 도로시, 어디까지 왔니?

- 베리어프리,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대표 허경미 인터뷰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오후세시프리퀀시(출처 :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첫 번째 법은 1981년 제정한 「심신장애자특별법」이었다. 이 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76회나 거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장애인의 문화 참여에 대한 보편적 복지 보장이라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촉진을 보장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예술에 있어 장애인들이 향유자를 넘어 적극적인 창작활동의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용예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예술인 육성프로그램>이 그것이다. 2019년 이 사업에 선정되어 활동을 시작한 베리어프리 무용단,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허경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소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활동에 대해 많은 분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어요. 편의상 이 글에서는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를 도로시로 부르겠습니다. 도로시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Lyman Frank Baum)이 쓴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용단 이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미 참여자들을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 중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보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발달장애인 참여자 한 분이 노란 선(도로선을 의미)을 따라왔다고 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자 문득 오즈의 마법사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도로시가 친구들과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머럴드시를 찾아가며 모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만남을 통해 멋진 도전과 경험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무용단 이름을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로 짓게 되었습니다.

소윤 도로시는 장애, 비장애예술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단원이신가요? 아니면 전문가인 비장애예술인들이 교육자의 역할을 하시는지요?

경미 3년간의 <장애예술인 육성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장애인들이 교육받는 위치였지만 지금은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고유번호증도 받았어요. 현재 발달장애인 한민기, 김유진, 이은애, 이지연, 정민수와 비장애인 박은지, 엄효빈, 정승환, 김민찬(2019~2021활동)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윤 도로시의 주요 활동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경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은 한 해에 4개월 정도씩 교육활동을 가졌습니다. 그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라 활동에 제한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저기 갈까?>라는 작품으로 댄스 비디오프로젝트를 제작하여 상영회를 가졌구요. 2021년에는 작품<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장애예술 테이블토크에 초청되어 공연하였고 또 작품<약속: 관계하다>로 부산문화재단의 장애예술 쇼케이스 공연을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2022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S) 공모에 선정되어 고양아람누리극장에서 공연하였고요. 그 외에도 굿네이버스 주관 ‘미드써머 드림’,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함께 가는 길’에도 초청되어 공연하였습니다.

소윤 2019년에 시작한 데 비해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미 변화해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시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일반 교육 참여자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같은 질문이었지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인 줄 알고 오셨다가 나중에는 신체 움직임과 태도가 무용 예술 창작가로 변화해 가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움직임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과 표현의 수용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강사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대해야 한다는 일종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거리감이 점차 좁혀졌습니다. 또 교육자로서의 역량, 즉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스스로 성장하게 된 것이예요.

소윤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이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쉬운 일 같지만은 않기도 해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요.

경미 처음에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신체장애에도 유형이 있듯이 발달장애에도 유형이 다 달라서 그 특성에 맞는 수업을 이끄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높았어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단원들과 함께 수업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폭력성이 드러나는 단원도 있었는데 그게 그 유형의 특징이었던 거죠. 우리는 수업의 규칙을 정해서 풀어갔습니다. 또 창의성이 수업의 목적인데, 그 바탕이 되는 지적·정서적 상상력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동작의 동기 부여에 있어 비장애인 수업과는 좀 달랐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춤을 통해 정서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좀 더디고, 축적이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인 만남이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혹시 장점이나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미 작은 규칙들을 굉장히 잘 지키십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춤의 표현에 있어 규칙들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체 움직임이 힘들 것이라고 짐작하고 가능한 덜 움직이는 동작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규칙을 정해 달리기를 했는데 정말 빠르게 달리시는 겁니다.

소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선입견, 즉 정신적·신체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비장애인들의 인식적 한계였을 수도 있겠군요.

경미 맞아요. 장애인의 고유성 안에서 동작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 고유성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분들을 가둔 것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동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소윤 배리어프리 무용단 활동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나 지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에 있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비용은 지원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이 없는 동안 비장애인 단원들의 노력으로 지탱은 했지만 모두 프리랜서 예술가인지라 유지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있어 단순한 배려나 온정주의보다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시나 재단 행사 때 장애예술인 출연에 대한 쿼터 제도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분량은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지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 늘어나게 되면, 특수성이 돋보일 수 있고, 수요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에 대해 보다 섬세한 분류와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관계하다(출처 :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소윤 부산문화재단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온그루와 두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시는 두구의 입주 단체로 활동하십니다. 두구 활동이 도로시의 성장에 도움이 되시는지요?

경미 두구라는 공간이나 지원이 있어서 좋으나 너무 외진 곳에 있는 점이 아쉬워요. 또 연습실이 없고 사무실만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창작공간을 마련해준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소윤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도로시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참,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도로시의 춤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미 장애인 단원들은 춤의 작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존감이 누구보다 높은 편이에요. 독립된 무용단 운영에 대한 고민, 예술적 성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의 친구들은 스스로 지능, 마음, 용기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였다. 그들은 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란벽돌길을 따라 마법사 오즈가 사는 에머랄드시에 당도했다.

노란 선을 따라가는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는 어떤 곳에 다다르게 될까. 아니 어떻게 가게 될까. 분명 녹록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장애는 또 다른 능력이며, 예술에 있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의미 없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는 고민과 땀 흘리는 노력의 시간이 그 길을 채워갈 것이다. 우리 도시의 실질적인 응원과 지원이야말로 바로 그 춤길의 '노란 선'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기꺼이, 노란 선이 되어 줄 것!

사상 이주민 반상회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이주가 우선이다.

‘이사’라는 말과 ‘차별’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결합되기 매우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말은 너무 쉽게 결합되어 폭력이 된다. 텃새라는 말이나, 지역감정이라는 말,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비유가 그렇다. 그런데 이런 말은 모두 ‘정착’을 중심으로 고안된 말이다. 과연 우리 삶을 정착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을까.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 땅을 떠났고, 부처도 자기 왕국을 떠났다. 주몽도 그랬다. 단군 신화 역시 다르지 않다. 인류의 역사가 떠남에서 시작한다는 것, 떠나기 전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기록도 없다는 것은 정착 인류의 역사를 ‘이주’ 중심으로 봐야한다는 뜻 아닐까.

이주는 새로운 것과의 대면을 전제로 하니, 혼종성과 다양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하늘 사람과 땅 사람, 신과 짐승이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그렇다. 마치 이방인을 환대한 문화가 역사를 새로 쓸 자격이 있는 듯, 거의 대부분의 신화와 역사는 이주와 섞임(hybrid)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삶의 창조로 시작한다. 인류의 역사가 모두 이런 식이라면 이주민이 아닌(이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주가 있기에 정착이 있다. 이주가 정착에 우선한다. 부산도 이를 증명한다.

부산, 이주민의 도시

이주하는 사람은 새롭고 더 나은 삶을 꿈꾼다. 이주와 거주자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다. 이주가 존엄하고 행복해야 인간적 삶이 완성된다. 부산의 경우를 보자. 부산은 실로 이주민의 도시다. 관문 도시인 탓에 부산에 들고나는 사람들은 많았다. 해방 후 귀환한 사람, 전쟁 중에 피난 온 사람, 산업화 시대에 이촌향도한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부산에는 유독 향우회가 많다. 부산을 제대로 보려면 이주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중국-대만 이야기(출처 : 천아름)



네팔 이야기(출처 : 천아름)

다양성과 경계예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문화 다양성은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한다. 부산이 이주민의 도시라는 점은 그만큼 창조적 잠재력이 많다는 뜻이다. 그 잠재력이 부산 사상 구에 거대한 복류(伏流)가 되었다. 이 복류를 시추해, 현대의 물꼬를 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계 예술(border art)의 사례를 보자. 북-중미 경계 예술가들은 미국 국경 봉쇄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는 예술 작업을 선보였다. 그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박힌 말뚝 사이에 시소를 설치해, 양국 어린이들이 서로 마주보며 시소를 타도록 했다. 어떤 이는 인간 대포가 되어 국경을 넘었다. 이들은 이주가 차별과 폭력을 돌파하는 생의 도약이며, 인권은 국경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부산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몽골 이야기(출처 : 천아름)

사상 이주민 반상회

현재 사상에서는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 진행하는 <이주민 반상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사상구가족센터>, <이주민문화센터>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반상회를 열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한국 사람들이 격주로 모여 자기 나라의 명절과 축제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아시아 절기 달력(예상) 같은 콘텐츠가 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필리핀 이야기(출처 : 천아름)

내 안의 오리엔탈리즘

이주민 반상회는 이주민이 발화자가 되어 선주민이 이주민의 문화를 경청하는 대담형 강좌다. 8월 3일이면 8번째 미얀마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강좌를 운영하면서, 나는 아시아가 너무나 비슷하지만 너무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새해를 기념하는 것만 해도 그랬다.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삼는 나라, 양력과 음력 모두를 새해로 삼는 나라, 음력 1월 1일을 새해로 삼는 나라, 심지어 새해가 양력으로 4월인 나라 등, 각 나라의 전통과 풍습이 너무 달랐다. 하지만, 이날 조상을 기리고, 가족을 만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점은 너무도 비슷했다. 나는 왜 이토록 아시아를 몰랐을까. 가까이 있어서 여행을 가도, 나는 정작 서구에 비해 아시아를 너무 몰랐다. 심지어 굳이 아시아를 알고 싶어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시아에 사는 오리엔탈리스트였다.



캄보디아 이야기(출처 : 천아름)

타인이라는 거울

이분들이 일깨운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분들이 명절과 축제를 강의하면서 하나 같이 한국을 노점국가라고 했다. 부산과 한국에 '축제'는 많지만, 정작 '축제다운 축제'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 축제문화가 음주라는 문화 획일성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이분들이 말하는 축제는 정말로 다종다양했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는 섬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각자 자기만의 축제를 연다. 필리핀은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나라다. 테스 씨는 우리더러 필리핀 갈 때 휴양지만 가지 말고, 마을로 찾아가 축제에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내게 그 말은 필리핀을 단순히 관광지로서만 소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 필리핀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고, 소통하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 외에도 네팔의 물감 축제, 몽골의 나담 축제, 중국-캄보디아의 용선 경주 및 배 축제 등, 이분들이 말하는 자국의 축제는 한국의 축제와는 판이했다.

한국의 축제는 어쩌다 저리 양상한 축제가 되었을까. 한국사회는 『피로사회』라는 독일 발 서적에 『과로사회』로 답한 바 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이 과로사로 귀결된 상황에서,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은 이미 먼 이야기가 되었다. 놀이가 양상해지다 못해 사라진 상황에, 이분들이 경종을 울렸다. 한국의 강박적 상황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는 폐쇄적 공포와 배제의 폭력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을까. 많은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환대는 낯선 접촉을 통해서

차이와 만나지 않으려는 폐쇄적 사회에 폭력이 일기 마련이다. 제주에 예멘 난민이 방문한 후, 한국에 예멘 난민 혐오 담론이 판을 칠 때, 예멘 난민을 자기 호텔에 무상으로 받아주었던 어느 호텔 사장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 사람들은 예멘 난민을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호텔을 나간 후, 제주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숙박비를 보내오던 예멘 사람들의 면면을, 정작 혐오자들은 모를 것이라던 그분의 말. 접촉 없이 이해와 포용은 없고, 환대도 없다. 소통을 두려워하고, 접촉을 피하는 데서 편견과 혐오가 생긴다. 여기서 폭력이 꿈틀거린다. 사상의 이주민 반상회는 이주민과 함께 이 폭력의 걸을 돌파하고 새로운 지역 이야기를 써나가려는, 부산 문화다양성의 교훈이 되려 한다.



중국-대만 이야기(출처 : 천아름)



미얀마 또뚜야 강사(출처 : 천아름)

젠더 다양성과 성별영향평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 리뷰

문재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여성학 협동과정 교수

「성별영향평가법」의 출발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성별영향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 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법」은 1995년 UN 세계여성대회로 거슬러 가는데, 북경 UN 세계여성대회는 성평등 실현 전략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설정하여 각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 담긴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강령에 우리나라도 서명하면서 그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이후 정책을 수립,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에 시범 적용을 거쳐 2005년부터 점차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1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별법안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만들어지고(참고로 2010년 여성가족부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는 제·개정 법령과 성평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계획과 사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초반의 우여곡절 끝에 이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2014년 개정 이후로 보면 될 것이다. 이때부터 제도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젠더 거버넌스를 주목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를 만들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간을 거슬러 보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정책, 기관에서 ‘여성’, ‘성평등’한 의제의 등장이 그리 길지 않음을 상기시키고자 함이다. 그리고 여전히 ‘성평등한 세상’을 모색 중이다.

이분법적 성의 지리(geographies of sexualities)를 넘어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23)가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 유형별로는 법령 18개 과제, 사업 21개 과제로 총 39개 과제,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기관별 정책 개선 이행점검과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추진현황에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개선과제 도출률 증가 등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이 제고됨.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이 높아짐. 셋째,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증가함. 이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은 전반적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대상이 되는 사업은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 해당된다. ‘여성의 지위 향상,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전제 사항이다. 중앙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워낙 방대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작업이라, 이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친절한 보고서는 아니다. 더욱이 모든 사업들이 계량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각 기관, 지역, 주체들의 맥락과 특이성을 읽어낼 수 없는 점도 여전히 불편하다.

여러 정책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을 예를 들어 보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민 인식 조사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계획을 명시하였으며, 문화예술체계 및 보건의료체계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도시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의문은 모든 시민과 양성평등의 연결이다. 양성평등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민들은 참 모호하다. 각 지자체들(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르는)의 정책개선 이행 사례들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에서 이구동성으로 중요한 목표점으로 두는 성평등의 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보고서에 제시된 바, 성평등이 남녀, 양성에 국한되어 있음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젠더 다양성의 주소들은 보다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성, 젠더, 인종, 계층, 지역을 교차하면서 이분화된 성의 지리(geographies of sexualities)를 넘어서는 일임을 주변의 거리 곳곳에서 만난다. 여전히 존재하되 등재되지 않는 복수의 섹슈얼리티의 지도는 언제쯤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될까?

성평등 실현은 일상생활 혁명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성주류화나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전략이나 도구라는 취지와 목적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이며,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과제 수만큼 자신있는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없는 현실에 곤혹스럽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성주류화에 입각한 정책들이 들어선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얻는 데까지 131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처럼 세상의 패러디임을 바꾸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가령,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乳兒車)’로 변경하는(『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은 단순히 네이밍의 변경이 아님을 안다. 성별고정관념을 깨고, 이를 일상화하겠다는 실천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자체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균형이 단순히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와 의결권의 확보를 통한 젠더 정의(gender justice)에 닿아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처럼 일상의 실천과 연계된 정책들을 발굴, 의미화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이 보고서는 계량화된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확보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및 사회안전망 확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일·생활 균형 확산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등이다. 이러한 범주의 내용 안에서 ‘여성’만을 지칭하거나 여성만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적 ‘여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제도는 언제나 입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세계 안에서 수행적 실천에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 문제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한 제안을 생활체감형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우체국 편의시설, 월경건강 및 권리, 피임, 성매매 감염병, 임신전 검사, 난임 지원, 임신 중단 등에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국민공모’, ‘생활체감형’ 등을 내세워 일상생활 속 성평등 구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태도의 긍정성은 인정하나 보다 더 미시적인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분석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을 통해 도출된 개선책으로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참여 확대와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이 다소 용두사미 격이다. 306개 기관, 27,109개 과제의 추진현황, 이행 과제들을 검토하면서 내린 진단이라기에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다.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겠지만, 여성주의적 기획과 실행이라는 입각점에서 현재 성별영향평가가 반복하고 있는 전형성을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제도와 운영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경험주의적 연구를 보완하는 등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조는 그대로, 출생률은 반전?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을 기록,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다. 경제참여·기회, 교육 부분에서 114위, 104위를 기록하고 정치부분에서도 88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보고 앞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운영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대책이 ‘성평등’에 있다. 성평등은 구색,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시각 위에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4. 07. ~ 08.

부산문화재단

환자와 예술가가 함께하는 Hospital Art 본격 가동(8.13)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환자와 예술가가 함께하는 Hospital Art를 위하여 다움병원, 좋은부산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장기치료,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제약이 있는 환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구축하고,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할 예정이다.

ESG캠페인 ‘한성1918에코패밀리챌린지’ 진행(8.5)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대상으로 ESG캠페인 ‘한성1918 에코 패밀리 챌린지’를 진행한다. ‘나만의 일상 속 기후변화 대응 챌린지 인증샷’을 찍어 메시지로 전달해 해당 게시물에 ‘참여완료’ 또는 ‘응원 한 마디’ 댓글을 작성하면 선착순 40명 대상 비건 삼푸바와 양모볼 증정한다.

지역 예술인 융자금 이자지원(7.22)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들의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정 후 이자분에 대해 1인 최대 300만 원을 환급 지원할 예정이다.

단편영화 ‘산복이’ 제작 발표회 개최(7.17)

7월 19일 중구 모퉁이극장에서 생활문화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중 하나인 단편영화 ‘산복이’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다. 영화는 드라마 ‘왕초’, ‘호텔리어’ 등을 연출한 부산 출신 장용우 감독과 지역의 프로덕션, 부산 대학생들이 모여 함께 제작한다.

예비 장애인예술인 발굴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추진(7.10)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포용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장애예술 커뮤니티 <그루-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예비 장애인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기반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참여자 중심의 운영 방식과 동료 학습 기회 제공이 특징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위한 경제·문화 컨버전스 포럼 개최 성료(7.9)

부산문화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7월 8일 ‘제5회 글로벌 허브도시 컨버전스 포럼’을 개최했다. 그간 포럼은 11개 혁신기관이 공동 참여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발전 전략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는데, 이번 5차 포럼은 ‘도시재탄생프로젝트 강요식, 다시 부산’이라는 타이틀로 경제와 문화 2가지 섹션으로 진행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7.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의 일환으로, 양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 교류를 통한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교육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총 15억 국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별 특색과 서사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대한민국 가을, 미술로 물들인다(8.14)

2024년부터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처음 개최한다. 축제는 광주-부산-서울에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9.7.~12.1.)와 부산비엔날레(8.17.~10.20.)를 비롯해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프(7.30.~8.25.), 서울아트위크(9.2.~9.8.), 키아트 서울(9.4.~9.8.), 프리즈 서울(9.4.~9.7.) 등 대규모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해 진행한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제공하는 전시연계 상품을 활용하면 입장료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7.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에는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 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30개 지역문화재단과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 이룰 협력방안 모색(7.24)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에서 전국의 광역·기초 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지역 문화예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5세 이상 고령층, 문화예술, 체육활동 참여할수록 더 행복해(7.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고령층 문화누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국내 액티브시니어 고령층의 행복한 삶에 대한 해답을 밝힌다. 고령층의 문화누림 활동과 행복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①여행, 관광, 나들이 경험 횟수, ②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 관람 횟수, ③ 자원봉사 활동 참여시간 등이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더 행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 접수 시작 (7.3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비영리법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9월 25일까지 받는다. 인증받은 단체와 기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 상 수여 ▲인증마크 활용 ▲언론홍보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문화향유 지원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비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아카이브 연계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 관설 미술공모전과 한국미술>(7.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 관설 미술공모전과 한국미술>을 주제로 한국미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한국 관설 미술공모전의 효시로서 일제강점기에 운영된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관련 기록물들의 DB구축과 데이터모델링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서울문화재단

EBS, 서울문화재단과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7.22)

EBS는 서울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다. 공연 인프라를 활용해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강원문화재단

제3차 2024 강원문화정책포럼 개최(7.1)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은 도내 기초재단과 협력해 제3차 2024 강원문화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강원 문화예술축제의 친환경 전환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정책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로컬로 턴
vol. 27 / 2024 Winter

지역의
도전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CULTURE

이슈

페이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이번 호는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구 정책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사례, 지역에서 이루어진 창업 활동과
로컬의 가치를 다룬 글들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의 면모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좌담회와
창업 정책 연구를 통해
부산이 청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의 도시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칼럼	
지방시대,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열다 이미연 /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92
이슈	
1. 부산광역시 인구정책과 문화예술 김민경 /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95
2. 지속가능한 지역 공연예술 축제 - 부산국제춤마켓 신은주 / 부산국제춤마켓 예술감독	98
3. 클래식, 관객과의 변주 문화예술 스타트업 샤콘느 윤보영 / 문화예술 스타트업 샤콘느 대표	101
4. 로컬 to 로컬 오동욱 / (주)바림 대표	105
사람과 현장	
청년집담회 - 부산,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페레즈 카르바할 마리아 카밀라 / 직장인 주라에바 아이샤 타키르 키지 / 학부생 이소이 / 직장인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07
연구보고서 훑아보기	
느리되 함께 가는 지역문화 창업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111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114

지방시대,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열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수도권이 블랙홀이 되어 사람, 돈, 일자리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요즘만큼 여러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는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수도권 중심주의 아래 특히 지역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은 노인과 빈집만 남아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상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을 더욱 간절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으로 활동하며 그간 만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지역을 새롭게 만나고 있다. 한결같은 점은 지역 어디나 감소와 소멸, 위축, 격차, 불균형을 넘어 지역이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을 삶터로 지키기 위해 눈물겹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 지역문화 활성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 문화는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추동하는 주요한 힘이 되고 있다.

올해 방문했던 곳 중 단연 인상적인 지역은 신안군이다. 신안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22배이지만 인구는 38,124명에 불과하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41%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1위이다. 1,025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유인도는 76개이며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신안군을 1004섬으로 명명하고 1섬 1색깔 브랜딩을 추진한 박우량 군수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통해 신안의 기적을 만들어내고자 했다고 말한다. 보라색으로 물결치는 퍼플섬(반월·박지도)의 인구는 136명(2022년 하반기 기준)에 불과하지만 UNWTO 2021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되고 문체부 한국 관광의 별 '본상'(2021)을 수상하며 2023년 39만 1천 명이 방문하는 지역이 되었다.

지방시대 기획단을 맞이하는 공무원들의 복장은 모두 산뜻한 보라색이었으며 군수가 직접 공휴일도 마다 않고 신안의 아름다움을 열정적으로 설파하며 섬 곳곳을 안내하는 모습에서 정말 마

음으로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순례자의 섬(기점·소악도), 맨드라미의 섬(병풍도), 수국·팬나무의 섬(도초도) 등 인구수가 적은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다. 꿈을 섬에 입히고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놀라운 것은 안좌도 플로팅 뮤지엄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 야나키 유키노리, 비금도 바다의 미술관에 전시되는 세계적 작가 안토니 고티의 작품을 우리가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신안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안군 정책추진의 핵심은 주민 역량 강화, 주민의식 고취,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 함양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역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조성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처음으로 5년 주기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지정되었다.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함된 곳은 경북, 전남, 강원이다. 경북과 전남은 16개의 시군이 포함되었으며 강원의 경우 11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가 지정되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된 인구감소 관심지역 안에 부산의 중구와 금정구가 포함되었다. 인구감소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8가지를 근거로 삼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소멸기금 활용 등을 통해 지역생존을 위한 사활을 걸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방문했던 영암군에서 '강해영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었다. 강해영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를 겪는 이웃한 세 지자체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이 주인공이다. 인구 33,000명 강진군, 인구 65,000명 해남군, 인구 53,000명 영암군이 '뭉쳐야 산다'를 기치로 연결, 연계, 협력 전략을 세우고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창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년 동안 구상해서 현재 실행중이며 세 지역 모두 지역 문화관광재단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시 세 지역이 협력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8억 5천(3억/3억/2억5천)으로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어버스 진행, 당일 시티투어 상품 운영 등 생활인구 확대의 패턴을 과감하게 바꾸는 전략을 진행중이다. 영암은 '5만 2천 혁신디자이너와 함께' 라는 브랜딩으로 군민 모두가 디자인하는 지역 전략을 내세우고, 해남은 '군이 회사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간기업 혁신을 이끌어내고 마을기업 '가와바전원플라자'를 설립해서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사업 연계로 프리미엄 특산물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강해영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이 각자도생을 하기보다 행정적, 경제적, 자원적, 문화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관광시장 및 인프라, 시스템을 연결하며 개별적인 군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력과 더불어 선의의 경쟁 속에서 지역소멸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프로젝트가 좌초하지 않고 더욱 공고한 연결과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문화도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다. 2019년 첫 선정을 시작으로 그간 4차에 걸쳐 총 24개의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중 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은 5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 1항을 근거로 한 법정도시이다.

최근 24개 문화도시 중 인구감소 지역 4개 지자체(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전북 고창군, 강원 영월군)의 사업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일구고 있는 곳이 영월이다. 강원 영월군은 인구 37,000명, 고령화 비율 34.6%, 재정자립도 13.48%으로 폐광으로 인해 일자리 정주여건이 취약하고 지역인구 유출 가속화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지역이다. 굵이굵이 태백산맥과 동강에 둘러싸인 영월은 예로부터 첩첩산중, 육지고 도라 불리던 산촌이며 근현대사 속 영월은 석탄광산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도시화를 이끈 중추 도시로 지하 막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꿈을 캐내려고 노력한 광부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도시였다. 폐광으로 삶의 리듬이 무너진 영월은 단기간에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도시 활력이 확연히 감소되었다. 하지만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일상의 삶을 문화로 사람·활력·공간 충전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석탄광산에서 문화광산으로’를 내걸고 영월군은 지역소멸 대응형 문화도시 모델로써 문화정책이 도시정책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과 공공분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원스톱 문화도시 정책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여성가족과까지 전방위적으로 타 부처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부분은 문화정책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 과제 실행에 있어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문화도시 사업 대비 권역별 성장과 실질적 발전 성과를 강조하는 광역형 선도모델로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13곳이 지정되어 2024년 예비사업을 실행 중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적 도시브랜드 창출로 도시의 경제적 발전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별 3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기존 문화도시 대비 연간 지원액은 거의 2배가 되는 셈이다. 기존 문화도시와 다른 점은 지정도시 전체 및 인근권역을 사업범위로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예술인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광역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권역별 문화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타 특구와의 연계방안을 찾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화로 열어가는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시민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 문화정책이 도시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광역시 인구정책과 문화예술

김민경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인구감소가 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본격 도입되었고, 이를 토대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 주민등록인구, 2) 체류인구, 3) 외국인등록인구로 유형화된다. 주민등록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인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은 지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정주인구 증가에서 벗어나 비정주인구 유입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생활인구 :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인구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인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

그동안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한 주민등록인구 증가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자리, 문화예술, 도시계획, 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1년 발표된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또한 이러한 범위 확장 및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취업, 창업, 기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자리정책, 주거, 복지, 문화, 도시계획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임신·출산, 보육, 교육을 포함하는 출산지원 정책과 함께 인구정책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시행중인 대다수의 인구정책 사업들 또한 저출생 지원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등록인구의 유출은 막고, 체류인구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간 접점은?

문화예술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의 체류 및 정주 욕구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구정책과의 긴밀한 접점을 형성한다. 문화예술이 정주와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자리, 교육여건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바 있다(Parkinson et al., 201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9; 하수정 외,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지스타 2021 행사운영’,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부산불꽃 축제’ 등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및 행사를 인구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사업 중 문화예술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제1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민들의 문화향유증진과 인구 유출 완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시범실시 이후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30~40대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며, 2024년부터 실시된 ‘부산 청년만원문화패스’는 청년인구 유출완화 및 유입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향유 지원이나 공간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화예술의 인구 유출 완화와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에서 기대하는 문화여건 개선을 경험할 수 있는 장르적 다양성의 강화와 질적인 측면의 향상이기 때문이다(김민경, 2024; 김세현 외, 2023). 결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포함하는 문화전문인력과 관련 시설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 예술생태계의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다양성 강화와 질적인 측면의 향상을 이루어낼 수 없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공급되는 부산시 일자리 여건을 고려한 문화향유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 문화향유와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접점확대를 위한 과제

2026년부터 적용될 ‘제2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문화시설 운영이 체류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등 부산의 주요 공공 문화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2025년 개관 예정인 부산국제아트센터까지도 주민등록인구 유출 완화 및 체류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는 주요 거점 시설로 역할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연계 실행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를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도 요구된다. 즉,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간 접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접근은 문화예술의 교육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는 전략임과 동시에 예술적 활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관객으로서 시민들이 찾지 않는 문화시설은 더 이상 미래가 없기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는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주요 거점인 문화시설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에 문화예술계도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의 주체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관객개발 전략, 운영 계획 등의 수립 시 단순히 주민등록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비정주 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급하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기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니즈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있지 않다.

부산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다양성 및 고유성의 강화로 서울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문화적 매력을 형성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때 문화예술은 부산으로의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arkinson, A. et al. (2019),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in Place-shaping. Wavehill and Arts Council Englan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9), 「The Arts in Neighborhood Choic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하수정 외(2021),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총괄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민경(2024), 지역소멸시대, 문화적 대응전략 BDI정책포커스, 부산연구원
김세현 외(2023), 「인구위기에 대한 부울경 지역 공동의 대응: 사회문화요인을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지속가능한 지역 공연예술 축제 - 부산국제춤마켓

신은주
부산국제춤마켓 예술감독

2008년 독일 탄츠 매세 무용박람회에 나의 작품이 선정되어 공연과 전시를 한 후, 부산에서 이와 같은 국제교류 창구를 꿈꾸었다. ‘부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무모한 바람으로 부산국제춤마켓(BIDAM)은 탄생되었다. 이렇게 2024년의 BIDAM이 15회째 개최되었으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15년간의 프로그램은 국내외 작품을 소개하는 포커스, 레지던시를 통한 공동협력작업 커넥션,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경연프로그램, 대한민국청춤챌린지, 예술가와 일반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무용 필름, B미팅, 라운드테이블-세미나 등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부산의 3~4개 대 중소 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금정문화회관과는 2022년부터 공동 주치를 해오면서 지역의 축제로서 다양한 관객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활동의 장을 넓혀 주었다.

부산국제춤마켓의 형성과 역할

부산국제춤마켓은 2010년 춤 전용공간인 ‘춤공간 SHIN’을 개관하면서 시작했다. 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며, 과정이라는 시간을 형상화해낸다. 춤 전용공간 SHIN은 이처럼 의미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축제를 시작하였다.

부산국제춤마켓은 설립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국제 무용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매년 가을, 6~8개국에서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며, 국내외 델리게이트들과의 네트워킹과 유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과 세계를 연결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 사무국을 꾸리면서 축제의 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헝가리, 프랑스, 일본, 쿠바, 파나마, 멕시코로부터 초청받으면서, 부산과 세계, 예술가와 예술가, 해외 기획자들과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관객과 예술의 연결 플랫폼으로의 성장

부산국제춤마켓은 캐나다, 스위스, 헝가리 등 세계적인 무용단들의 공연을 유치해왔고, 국제 예술가들과의 공동 협업 등으로 입지를 다져 왔다. 지난 3년간 총 20개국에서 100여 명의 델리게이트들이 참가해 지역 예술가들 및 청년 안무가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등으로 초청되어 공연투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 공연장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매년 2,000여명의 관객들을 맞이하는 국제 무용축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금정문화회관과의 협력지원을 통해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산공연예술마켓(BPAM)과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양문화예술회관 블랙박스 공연장을 새롭게 활용하여 장에/비장에 워크숍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였다.

청년 안무가 육성을 위한 중장기 연대 구축

‘대한민국청춤챌린지’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기획되었다. 당시에는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방식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했다.

인큐베이션의 다른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 번도 발표된 적 없는 작품을 공모로 선정한 다음, 경연의 형식으로 공연 후 한 팀을 선정하였다. 신작을 발표하여 그 해 챌린저로 선정이 되면, 이후 국내외 전문가 멘토의 피드백을 받고 다음 해에 보다 성숙된 작품으로 공식 프로그램의 작품으로 출품하는 창작과정의 지원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관객들의 반응과 관심은 대단하였다. 공연 종료 후, 청춤챌린지 참가팀들의 평가 자리에는 해외 델리게이트들이 동행하여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이 즉석에서 벌어지기도 하였다.

청년 안무가로서 해외 무대 진출과 역량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멘토링의 다각화 및 해외 인턴십 연계를 위해 플랫폼 간의 중장기 협력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독일 브레멘극장과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와 협력 모델은 향후 더 많은 글로벌 청년 예술가 간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예술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용계와 청년 예술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가능한 국제 교류와 예술적 성장을 위한 제언

- ① **연속성과 지속성:**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가능한 국제 교류와 예술적 성장은 단계별로 기획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아시아는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문화적 유사성도 있으며, 동시에 국제 교류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적합해 각국 예술가들이 서로의 예술적 특성을 발견하고 상호 소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 협력 모델은 향후 더 많은 아시아권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② **실험적인 창제작 환경 구축:** 자유로운 창작과 교류 경험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청년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적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여 스스로 자신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창제작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신진예술가들의 보다 실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 꼭 필요하다.
- ③ **플랫폼 참여 기회 확대와 경쟁력 강화:** 세계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각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크고 작은 플랫폼에 참여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작품을 발전시키는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플랫폼에 참여하는 국제무용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작품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고 나아가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간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이제는 청년 예술가들의 성장과 국제무대에서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보다 더 견고한 창작기반을 필요로 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과 창작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도전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과 행정 그리고 실행이 되는 환경이 현장에서 활성화 되어야 하고 반드시 구축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미래의 한국은 열린 국가이자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특색 있고 전문화된 도시들로 채워질 것이다. 교육 중심의 도시가 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가 된다면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도시가 된다는 의미이다. 부산이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은 뚜렷하다. 세계적인 해양 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를 꿈꾼다. 부산은 천혜의 환경 자원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 2의 도시이자 국제향이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건설될 세계적 규모의 공항으로 인해 국제적 교통의 허브로도 도약할 것이다. 즉, 더 많은 세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문화예술의 도시인 부산으로 모든 인종들과 민족들이 예술과 문화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들 것이다.

부산이라는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젊은 예술인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이들을 한데 모으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에 정착할 아무런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인프라라는 의미는 단순한 극장이나 공연장 등의 건물이나 학교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유형의 요소들이지만 진정한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인적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클래식, 관객과의 변주

문화예술 스타트업 샤콘느

윤보영

문화예술 스타트업 샤콘느 대표

변주곡이란?

클래식 음악, 특히 고전 음악을 듣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형식이 있다. 바로 변주곡(Variations)이다.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를 기반으로 리듬, 템포, 조성, 화음 등을 바꾸어 새로운 느낌을 주지만, 원래의 주제가 잘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인 바흐 '샤콘느'의 주제는 8마디밖에 되지 않지만, 총 32번의 변주를 이끌어내면서 15분이 넘는 바이올린의 대곡을 완성하였다.

요리사의 변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예능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 요리사 '백수저'뿐만 아니라, 제작진이 재야의 고수로 분류한 '흑수저' 요리사 중에서도 '철가방 요리사', '급식대가'부터 '비빔대왕', 그리고 만화책으로 독학으로 요리를 배운 요리사까지 기존 요리 서바이벌에서 다뤘던 미식의 변주가 펼쳐졌다.

필자의 가장 '최애' 변주 셰프는 두부 요리로써 최고의 변주로 이목을 끌었던 '에드워드 리'였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화차는 혼합팀전에서 스테이크가 '질기다'라는 손님들의 평가를 듣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에드워드 리 셰프도 멋졌지만 이러한 상황을 심사위원이자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대표 백종원 대표가 직접 먹방러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어보는 장면은 충격적일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평소 백종원씨가 골목식당에서 가게 사장님들에게 "손님들이 돈 주고 산 음식을 이렇게 남겨서 그냥 가는데 단 한 번도 안먹어보냐"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요리의 완성은 소비자가 먹는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잔반이 왜 남겨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클래식 공연의 잔반, 빅데이터 KOPIS

클래식 음악 산업의 잔반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산업의 통합전산망인 KOPIS를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서양음악(클래식) 공연으로는 부산 공연이 6.5%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국 지역별 전체 공연실적은 2위인 것에 반해 서양음악 장르별 티켓 판매액으로는 1위 서울 73.7%, 2위 대구 6.8%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다.

2023년 지역/장르별 티켓판매액

(단위 : 천원)											
구분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서양/한국)	
	2023년	비중(%)		2023년	비중(%)	2023년	비중(%)	2023년	비중(%)	2023년	비중(%)
시	서울	50,375,421	87.7%	347,264,654	83.7%	58,460,142	73.7%	2,602,068	74.8%	13,791,927	83.8%
	부산	1,416,000	2.5%	35,549,653	8.6%	5,162,444	6.5%	336,992	9.7%	1,062,120	6.5%
	대구	1,967,493	3.4%	15,275,191	3.7%	5,396,657	6.8%	67,187	1.9%	341,312	2.1%
	대전	1,061,253	1.8%	5,363,950	1.3%	2,220,037	2.8%	89,560	2.6%	575,604	3.5%
	광주	1,095,239	1.9%	3,283,323	0.8%	2,155,994	2.7%	187,475	5.4%	262,706	1.6%
	세종	407,554	0.7%	1,546,537	0.4%	979,646	1.2%	36,298	1.0%	227,862	1.4%
	울산	760,039	1.3%	2,372,211	0.6%	921,182	1.2%	60,671	1.7%	141,275	0.9%
	인천	389,716	0.7%	4,018,283	1.0%	4,078,777	5.1%	98,580	2.8%	61,028	0.4%
	소계	57,472,715	100.0%	414,673,802	100.0%	79,374,879	100.0%	3,478,831	100.0%	16,463,834	100.0%

출처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클래식 공연의 ‘백수저’ 스타 연주자

창업한 이래, 필자가 시작해온 ㈜샤콘느의 키즈 콘서트는 재방문 고객 데이터가 네이버 예약 기준 현재 20,24%로 분석되고 있다. 아티스트들이 좋은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프들이 주방이 아닌 쓰레기통으로 뛰쳐나와 소비자의 잔반인 어떠한 통계로 예매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2023년 지난해 클래식 장르의 티켓 예매수는 308만 3521매를 기록, 전년보다 24.9% 늘었다. 같은 기간 티켓판매액 역시 999억 원으로 47.2% 급증했다. 전체 공연시장의 티켓예매수와 티켓판매액 증가율이 각각 14.3%, 23.5%라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장이다.

지난해 최고 티켓 매출을 낸 클래식 공연은 <키릴 페트렌코 & 베를린 필하모닉>이다. 베를린 필이 6년 만에 내한한 데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해 주목받았다. 당시 베를린 필 뿐 아니라 빈 필, 네덜란드 명문인 로열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까지 같은 시기에 내한했지만 베를린 필 인 기엔 미치지 못했다. 이 공연은 티켓 가격이 최고가 기준 55만 원에 달했는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사이트가 다운되고, 정상화 후 2분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객이 몰렸다.

스타연주자의 압도적인 티켓 파워로 ‘백수저’의 힘을 보여줬다면, 클래식 공연의 ‘흑수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

2023년 총결산 공연 특성별 티켓판매 현황 및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공연건수 (건)	비중 (%)	공연회차 (회)	비중 (%)	티켓예매수 (매)	비중 (%)	티켓판매액 (원)	비중 (%)	공연 1건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티켓 1매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아동 공연	3,308 (▲0.8)	16.2	28,524 (▲28.2)	24.5	3,505,445 (▲18.1)	16.7	81,176,949,986 (▲11.1)	6.4	24,539,586 (▲10.2)	23,157 (▼5.9)
내한 공연	813 (▲168.3)	4.0	1,053 (▲5.7)	1.3	1,429,253 (▲103.0)	6.8	135,097,922,132 (▲80.9)	10.6	166,172,106 (▼32.6)	94,523 (▼10.9)
대학로 공연	1,217 (▲9.0)	6.0	46,159 (▲19.1)	39.6	3,150,346 (▲0.9)	15.0	93,691,383,052 (▲26.8)	7.4	76,985,524 (▲16.4)	29,740 (▲25.7)
오픈런	226 (▼79.6)	1.1	41,327 (▲27.6)	35.4	1,687,298 (▼15.6)	8.0	32,366,862,269 (▲11.9)	2.5	143,216,205 (▲448.1)	19,183 (▲32.7)
축제	1,671 (▲7.5)	8.2	3,640 (▼8.0)	3.1	940,456 (▲1.7)	4.5	46,109,156,210 (▲10.4)	3.6	27,593,750 (▲2.7)	49,029 (▲8.6)

※ 공연 특성의 경우, 여러 특성에 포함되는 작품들로 인해 중복값이 존재하며(예. 아동 공연이면서 대학로 공연인 경우), 5개 특성(아동, 내한, 대학로, 오픈런, 축제)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작품도 존재하므로, 비중 합계가 100%가 될 수 없음.

출처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클래식 공연의 재야 고수 ‘흑수저’ 아동 공연의 성장

2023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체 티켓판매 현황에서 살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공연의 동향이 있다. 바로 아동 공연이다. 전체 공연회차의 24.5% 및 티켓 예매수 16.7%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 공연은 공연 티켓 예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연령층 2030(74%), 성별로는 여성 예매자(86.5%)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애니메이션이나 유명 캐릭터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어, 공연 내용이 친숙하고 관객 유입이 용이한 형태이다.

모차르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종합 예술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45일간 연주회를 하면서 경제효과만 2,484억 원을 창출해내는 대표적인 세계음악축제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자랑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 공연 문턱을 낮춰 미래 관객을 길러낸다. 축제 기간 금요일 오전 10시 카피텔 광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발레, 드라마가 상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9~17세를 대상으로 오페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오페라 캠프’도 개최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페라 연극 콘서트 티켓을 최대 90% 할인 판매한다. 가족 단위 관객을 끌어들이는 비결이기도 하다. 1920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아동 참여를 높여 미래 관객을 길러내면서 예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를 모두 잡은 대표적인 축제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어린이 오페라
출처 : <https://v.daum.net/v/20240808151800609>



(주)사콘느 모차르트 마술피리

다양한 변주는 새로운 주제를 창조

간간하기로 유명했던 ‘안성재 셰프’ 심사위원이 급식대가의 음식을 먹어보는 장면에서 “오늘의 급식 메뉴는 무엇인가요?”하는 장면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또한 ‘흑백요리사’ 음식 중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는 의외로 급식대가의 음식을 꼽았다. 급식대가의 음식이 과거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클래식 공연의 ‘파인다이닝’을 꼽자면 스타연주자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공연들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관객들의 니즈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며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바탕으로 하는 변주들이 많이 연주되어야 하고, 어린이 관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미래에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미래 관객을 길러야 한다.

필자가 제작한 어린이 오페라 뮤지컬 10편 중 가장 애착가는 오페라는 바로 ‘모차르트 마술피리’이다. 주인공 타미노 왕자가 시련을 이겨내며 행복한 결말을 얻는 흔해 빠진 해피엔딩의 스토리이지만, 생각보다 그 시련의 문턱에서 이겨내는 경우보다 그 시련을 피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관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분석하며 공연하는건 오늘 공연기획자들의 숙제이자,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시련이다.

‘두부’ 본연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야 했던 ‘흑백요리사’의 시련처럼, 오늘날 다양한 기획자들이 ‘클래식 음악’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변주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하여 본다.

로컬 to 로컬

오동욱

(주)바림 대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2020년, 필자는 국제신문과 함께 부산을 떠나야만 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청년 졸업 에세이>를 공동 제작한 경험이 있다. 이 작품은 부산에서 성장했지만 지역의 한계 속에서 더 넓은 기회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청년 세대의 목소리와 그 속에 담긴 애환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사라져 가는 청년 인구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현상들은 단순히 개인의 아쉬움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균열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부산의 인구 감소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청년층의 유출은 부산을 전국 광역시 중 최초의 고령사회로 밀어 넣고 있다. 현 세대의 부산지역 청년들은 ‘탈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고향을 떠나고 있다. 많은 청년이 고향에 남고자 했으나, 지역 내 일자리와 성장 기회가 부족해 떠나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필자와 같은 30대 중반 세대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미 절반 이상이 부산을 떠난 상태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쇠퇴 속에 부산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자금을 투입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데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역할

로컬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 한 지역을 다방면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도시재생’, ‘문화 재생’, ‘로컬크리에이터’, ‘글로컬’ 등 다양한 단어들을 주목하였고, 이는 지역이라는 단어 안에서 큰 뜻을 같이한다. 로컬크리에이터 역시 ‘지역 예술가’, ‘지역 소상공인’, ‘지역 활동가’ 등을 포함한 뚜렷한 경계가 없는 포괄적인 단어로 지칭되고 있다. 현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는 창의적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지역 내 자원과 고유한 문화를 창의적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작 활동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고유한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역의 전통산업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지역 예술과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며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이란 장르는 현재 로컬크리에이터라는 단어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다. 문화예술 도시재생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들과 지역 상생의 표본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청 / 년 / 집 / 담 / 회

부산,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 인터뷰이 1) 페레스 카르바할 마리아 카밀라(Perez Carvajal Maria Camila, 직장인)
2) 주라예바 아이샤 타키르 키지(Djuraeva Aysha Takhir Kizi, 학생)
3) 이소이(직장인)
- 인터뷰어 이소민(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일본 나오시마 섬의 사례 : 예술을 통한 지역변화와 상생의 모델

나오시마 섬은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에 위치한, 세토 내해의 동쪽에 자리 잡은 작은 섬이다. 이곳은 에도 시대에 제염업과 해운업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미쓰비시 광업이 제련소를 설치하면서 또 한 차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주력 산업의 변화로 지역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섬은 점차 활력을 잃어갔다. 황폐해져 가던 이 섬은 1986년, 일본의 출판사인 베네세 그룹의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모색하며 재탄생하기 시작했다. 베네세 그룹은 나오시마 섬의 자연환경과 전통적 배경을 존중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안도 다다오를 기점으로 건축물을 통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현재는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예술의 섬'으로 변모하였다.

나오시마 섬이 일본의 대표적인 '예술의 섬'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단지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운 건축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꾸준히 이어진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이야말로 나오시마 섬의 변화를 이끈 핵심 요소다. 지자체, 주민, 예술가들의 오랜 논의와 협업을 통해 단발적 이벤트를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가 창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나오시마 섬은 현재까지도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며 문화예술산업으로서의 경제 성장력을 바탕으로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대만 보얼 예술 특구 : 지역 상권과 로컬크리에이터의 협력 모델

대만 가오슝시에 위치한 보얼 예술특수(Bo-Pi-Liao)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과거 항만시설로 사용되었던 창고 지역이었으나, 2002년 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문화예술 중심지로 변모했다. 버려졌던 창고와 항만 부지들은 현대적인 예술 공간과 복합 문화 시설로 탈바꿈하여, 지역 상권과 관광객을 유입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얼 예술특구의 성공적인 변화는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 간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다. 초기에는 주로 예술가들의 전시회와 공연을 통해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상점과 카페, 공예품 매장이 들어서면서 활발한 상업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예술가들이 상인들과 함께 특색 있는 제품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상생의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이 지역은 단순한 전시와 공연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협업하여 지역 특산물과 수공예품을 활용한 예술 상품을 제작하는 접근 방식은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로컬크리에이터, 문화예술로 여는 지역 재생의 씨앗

지방 소멸 위기는 대부분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 예술은 강력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해외의 사례들처럼, 단순한 개인의 활동과 의지가 아닌 지역민들 대부분이 로컬크리에이터로서의 의지를 토대로 문화예술이란 매개체와 협력하여 지역을 개발한다면, 단순한 경제적 성장 수단을 넘어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부산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이 바라보는 부산의 매력과 기회, 개선점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청년 집담회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 지역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청년의 시각에서 부산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자신들이 경험한 부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도시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부산이 청년들에게 진정한 기회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자기소개와 함께 부산에서 살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카밀라** 저는 콜롬비아에서 온 카밀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을 내려온 지 2년 정도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은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큰 도시라고 생각해서 내려왔습니다.
- 소이** 학부생 기간을 제외하고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현재까지 부산에서 살고 있는 이소이라고 합니다. 서울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도 그에 준하는 즐길거리는 모두 다 있는 부산이 좋아 살고 있으며, 공연기획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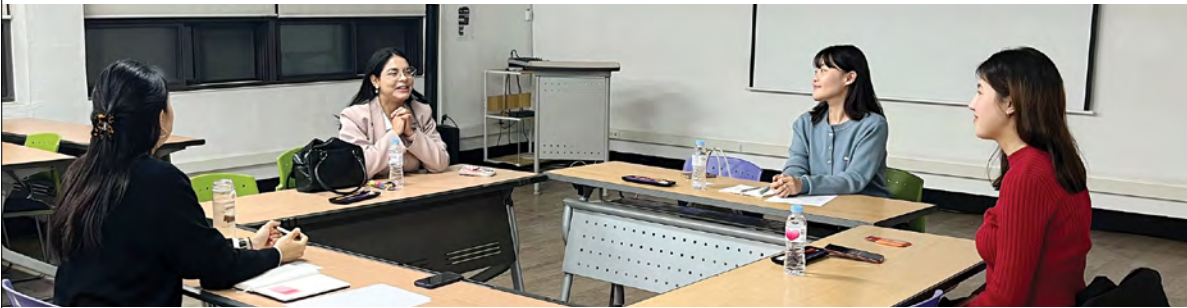
INTERVIEW

아이사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이사이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1년 정도 되었으며, 부산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 사투리 때문에 서울이 아닌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밀라 저는 서울에서 직장과 집을 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을 내려왔는데, 부산의 매력에 빠져 서울로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계약금 냈던 집까지 취소하면서 부산에서 다시 직장과 집을 구해 살고 있을 정도로 부산이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마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부산이나 김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구사하는 사투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거칠지만 그 속에 더 따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사 부산 사투리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이 화난 것 같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이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정주민으로서 이렇게 부산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보면, 날 것 그 자체로의 진정한 대한민국을 보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또 나날이 방문하는 외국인 인이 증가하는 것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카밀라 감촌문화마을을 가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 놓았지만, 실상은 피난민들이 살아온 아픈 터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이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역사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산은 무엇이든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 도시 자체가 인상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사 아까 처음 언급한 것과 중복되지만, 부산 사투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부산의 유명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에 부산 특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아는 로컬들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부산의 문화가 가장 좋았습니다.

소이 저는 부산사람으로서 외국인들에게 부산의 문화를 소개한다면 무엇이 좋을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부산 시립 국악 관현악단의 공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통 국악, 퓨전 음악 등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포동 용

두산공원 인근을 추천하고 싶은데, 전쟁 시기 때부터 켜켜이 쌓아온 세월이 흔적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근처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이라고 있는데, 부산의 짧은 역사를 다 살펴볼 수 있고, 과거 한국은행 건물을 개조했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산복도로의 색색깔 집들도 매력적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하. 가마솥에 튀기는 통닭을 시장에서 사오면 더 맛있으며, 부산에서 광안리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공연, 금정산성 축제 등 부산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도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가.

카밀라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현재 2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은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취업 관련 정보, 컨설팅, 네트워킹 등 모든 것이 이뤄진 곳입니다. 사실 서울은 이것보다 더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곳이 유일하게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동시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사 서울에서 외국인 봉사활동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서울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은 아직까지 많이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빚대어 청년들을 위한 기회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많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밀라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부산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취업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활동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다만, 비자 조건이 다소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거주지와 직장이 한 지역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이를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일하고 살아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이 저는 아직 기간제로서 근무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일자리와 관련된 기회 측면에서는 아직 아쉬움이 많은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을에만 봐도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등 동시에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는 점에선 즐길거리나 먹을거리 등은 수도권 못지 않게 잘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다도 보고, 부산에서 한달살기 할 정도로 거주비용도 서울만큼 힘들지 않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이슈페이퍼 24호에 러브소피 대표님이 "서울에 비해 도전하기 참 좋은 곳"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서울은 없는게 없고, 작은 아이디어 가지고 경쟁하는 반면 부산은 아무래도 서울보다 뭐든지 늦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도전하기에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업 지원도 잘 되어 있고, 자소서 첨삭도 해주는 제도도 있고 뭔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잘되어 있지만, 정작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힘듭니다.

카밀라 저도 소이님 말에 매우 동감합니다. 서울은 나라는 존재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경쟁이 매우 심한데, 부산은 주거비용도 서울에 비해 높지 않고, 먹고, 즐길거리가 다 갖춰져 있고, 바다보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서 워라벨을 즐기기에 딱 좋은 도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서 일자리 구하려고 면접보면 너가 잘해야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부산은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보자 라는 느낌이 저를 부산으로 오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청년들이 계속 머무르고 활동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아울러 부산에서의 향후 계획은.

카밀라 향후 계획이라 하면, 외국인이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단 몇 년간의 계획을 묻는다면, 일단은 부산을 온전히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청년들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게 지원할 가장 1순위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한국에서 남아서 일 자리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오로지 부산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자격증도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외국인들을 구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이사 저는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는 한국어를 부산에서도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 도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이 저는 부산에서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 자리를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자리 문제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왕왕 들렸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산에 살면, 부산 안에서만 일 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 메가시티가 형성된다면 내가 어디에 사는 곳이 어디든 울산 및 경남 등의 지역으로 연계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의 청년 유출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는데, 부산에 남아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 지점을 잘 파악하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내 노후에 대한 미래를 그려보았을 때, 이 도시에서 살아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집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바라보는 부산의 모습과 그들이 느끼는 기회와 아쉬움들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이 부산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느리되 함께 가는 지역문화 창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3)
「지역문화 창업 정책 방향 연구」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창업정책의 방향

창업은 최근 일자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는 기업 경영은 이전 세대가 간직하고 있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취업 문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육아 등 개인적인 요인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외부의 요인으로 중도 퇴사가 발생하기도 하며 정년 이후의 일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단 청년 일자리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 창업 지원사업과 그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와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창업 정책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원이 주를 이룬다. 21세기 전후로 제조업 기반 산업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 기술 기반 산업, 대중가요, 영화와 같은 기술 기반 문화예술산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었고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활발해졌다.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빠르게 성장, 발전하는 기술 기반의 창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부터 숙고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문화 창업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바로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 위기가 이 연구의 사회적 배경을 이루기 때문이다. 지역 청년들이 기술 창업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활기와 생산성은 더욱 약화 되었기에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할 방안으로 지역문화 창업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문화 창업이 단순히 산업이나 경제의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지역문화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색과 개성을 전제로 하는데 각 지역의 문화중심지, 청년 인구 접근성이 좋은 곳, 걷기 좋은 저층의 가치 있는 오래된 건축물, 지역 가치를 발굴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창업의 주요 자산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SEARCH

지역문화 창업정책 방안

보고서는 지역문화 창업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주요 쟁점을 정책 대상, 창업 교육과정, 창업 네트워크 구축, 투자 및 융자 제도 지원으로 도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정책 참여 대상을 다양한 연령대, 고용 취약 계층, 외국인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과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문화 창업의 경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 감각이나 관계 자본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축적되어 발휘되어야 한다는 특성과 이로 인해 초기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전문 투자 시스템과 지원방식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 창업 및 관련 정책에 특화된 펀드 조성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별 창업 사업체 발굴 지원모델과는 독립된, 창업 팀 결성을 통한 통합지원방식을 제시하면서 일본, 독일, 미국 세 나라의 창업 정책에서 시사점을 발굴하고 있다.

일본, 독일, 미국 창업정책의 시사점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방 소멸에 직면한 일본은 2014년 9월 도쿄 일극 중심을 시정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아, 일본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실행할 ‘마을 사람·일 창생 본부’를 설치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고 활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적 관심을 기울였는데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기업의 지역 연계 강화, 인구의 지방 이주 유인, 지방대학의 활성화가 그것이다. 또 지난 아베 내각은 지역의 자립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 경제 분석체제 제공, 인적자원 지원 강화, 재원 지원체계이다.

일본의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와 민간이 강력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창업가들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조건을 부여하였다.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원칙과 사회적 형평 원칙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이기에 지역 기반의 독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갖는다. 이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독일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07년 연방 문화미디어 특보와 함께 문화창조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잠재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 ‘문화창조경제 이니셔티브(Initiative Kultur-und Kreativwirtschaft)’의 경우 독일 문화창조경제 분야 사업체의 매출 증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독일 액셀러레이터(German Accelerator)라는 새로운 창업 지원과 성장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도의 정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기업 돕기(Unternehmen helfen Unternehmen)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창업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시장이나 판로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간기업과 대학도 교육,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특징은 이 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원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미국의 창업 지원정책은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혁신전략,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적 기업에 대해 창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caleUp America Initiative)는 창업 초기 단계 이후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창업 지원정책은 창업 생태계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어린 창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Intel, IBM, HP, Facebook과 같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위 세 나라의 창업 정책을 살펴볼 때 독일과 미국 창업 정책에 있어서는 기술 기반 창업 지원 성향이 뚜렷하였다.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독일 EXIST 프로그램, 미국의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적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전제된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를 조장하므로 지역문화 창업 연구의 방향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기업, 민간, 대학 등이 창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도력이 높고 지방 분권이 안정화된 측면이 있어 적용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나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에 대응하여, 지역문화 자원을 유기적인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풀어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지역문화 창업 정책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지역문화 창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산물과 같은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주체자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칭하듯이 단순 사업이나 장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감수성, 지역의 역사성,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소비자와 나누고 확산하는 것이므로 정주 가능한 일자리 조성, 공동체의 라이프스타일 향상, 환경과 생태계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느린, 성찰과 합의의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산하기관에서 창업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정책 분야에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지속 운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3-202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 지역주관기관 공모계획(2022.12)에 따르면 전국 10개 권역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연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고, 실제 서울·인천권에 도봉문화원, 경기권에 의정부문화재단과 평택시문화재단, 강원권에 춘천문화재단, 부산·울산·경남권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울산문화관광재단 7개소가 선정되었다. 권역단위 전문인력 양성의 규모로는 턱없이 적은 사업비이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중앙 단위에서 지역문화 창업에 대한 환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본격적인 시행정책과 사업을 기대하게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현안이 중앙의 지역문화 창업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지역과 중앙은 밀도 높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술 기반이건, 지역문화에 대한 것이건 위 세 나라의 사례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4. 09. ~ 11.

부산문화재단

울 가을 공연예술의 감동으로 물든 부산,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성황리에 폐막
(10.11)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부산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남구 문화골목, 광안리 해변 등 부산 일대에서 펼쳐졌으며 국내외 300여 명의 델리게이트와 700여 명의 예술단체,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한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비팜 공식 프로그램은 <공연>, <네트워크>, <시민행사>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공연은 비팜 예술감독단에서 엄선한 공식 초청작 40편(전막 8편, 쇼케이스 32편), 미래의 공연작품을 발견하는 도전의 무대인 비팜 넥스트스 테이지 38편, 10월 5, 6일 양일간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진 거리예술 24편, 10월 중 비팜과 연계한 부산국제춤마켓, 작강연극제, 부산원먼스페스티벌, 올해의 포커스온, B.라이징 아티스트 등 링크 작품을 포함한 200여 편의 작품이 부산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홍티아트센터 내 프랑스 창작공간
<빌라부산> 개관(10.2)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홍티아트센터에서 부산시와 프랑스 칸, 주한프랑스대사관이 「한국 내 프랑스 창작공간(레지던시) 빌라 부산(Villa Busan)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홍티아트센터 내에 해외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및 작가연구실을 제공하고, 해외 입주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는 입주예술가를 위한 왕복 항공권과 전문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칸에서는 입주예술가의 한국 내 체류를 위한 체류비를 지원한다.

개성 넘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9.20)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청년주간을 맞아 9월 21일부터 9일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지하에서 '2024 청년아트페어'를 개최하였다. 청년아트페어는 39세 이하 시각 분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한다.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중 공모로 선정된 30명의 청년 예술가가 참여하였다.

광안리 바다, 거리예술로 출렁이다!(9.13)

부산문화재단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광안리 해변가에서 부산거리예술축제를 개최하였다. 거리예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담은 '거리예술의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슬로건으로 준비한 축제에서 공식 초청작 7편(해외 5편, 국내 2편)과 공모작 13편 등 총 20편의 작품이 선보였다. 또한 거리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국내최초 발명 특허 의뢰기 신발 (주)슈울즈,
부산문화재단에 기부금 2천만 원 전달(9.10)

(주)슈울즈(대표이사 이청근)는 부산문화재단에 기부금 2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기부금 전달식은 두 기관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추진됐으며, 기부금은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정책 20주년,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다(11.12)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토론회와 문화예술교육 사업성과 공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모색한다.

한강 작가,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10.11)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현재 28개의 언어로 번역, 총 76종의 책으로 출간돼 전 세계 독자와 만나고 있다.

제1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부산에서 개막
(10.21)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립·공립·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뿐 아니라 전시 유관 산업체도 참여하는 국내 최고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수집가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획전부터 실감콘텐츠 전시, 교육·체험 행사 등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널리 알리고 업계 산업 동향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반입,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 열다(10.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10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이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 현장과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 논의(9.9)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정책에 관한 열린 세미나'를 열고, 공연·미술·문학 분야 예술인,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작품 창작·유통 관련 중앙-지방 연계 체계 마련 ▲공연·미술·문학의 지역 유통과 담론 형성, 해외 진출 지원 ▲예술단체 혁신, 예술 축제 집중 지원 ▲국공립 예술시설 특성화 ▲민간의 예술분야 투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부산진문화재단-울주문화재단
협약 체결(9.9)

금정문화재단(상임이사 이홍길), 부산진문화재단(이사장 김영옥),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과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재단 상생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부산과 울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프로그램 교류, 인적·물적 자원 상호 지원 및 네트워킹 확대, 유휴 공간 및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10.31)

우리나라 유일의 기초예술 진흥 공공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1월 1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문예기금은 최초 설치되었던 1973년 사업비 3,1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4,256억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누적 4조 3,232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으나, 기금 고갈 우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 2025년 연구비전 설정:
"실천적 연구의 연결로 미래 안착"(10.8)

부산연구원은 "실천적 연구의 연결로 미래 안착"이라는 비전과 함께 "BBB in 2025(BIG Dream, Busan Initiative: Bridging by Practical Research)"라는 슬로건이 제시하였다. 2025년을 부산의 미래 모습을 향한 중요한 시점으로 설정하고, 실천적 연구를 통해 미래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시대, 부산 먼저 미래로 도시의 혁신적 대전환"이라는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시민행복도시로서의 부산의 미래상을 구체화했다.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군 예술인 방문 간담회' 성황리 종료(9.11)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강원 지역의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 예술 관계자 간 교류 확대를 목표로 '2024 시군예술인 방문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으로 1대1로 권역별(내륙, 동해안, 접경, 폐공)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되어, 총 238명의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재단의 신규 예술인 복지 사업 수립 및 향후 지원사업에 개편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합본호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4. 12. 6.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인 박소윤 편집위원 김선영 김주현 장혜원 이소민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